

□ 현재 거주 중인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직장이나 학교 등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가 33.6%(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거비가 저렴해서가 18.4%(92명),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가 14.6%(73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99] 현재 거주하는 주거지 선택 이유 : 1순위

구분		직장이나 학교와 거리가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해서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주거비가 저렴해서		가족이나 친구 등과 거리가 가까워서		주거면적 및 주거 환경이 좋아서		거주지의 치안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생활편의시설 이 가깝고 다양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98	37.8	28	10.8	38	14.7	42	16.2	27	10.4	13	5.0	7	2.7	3	1.2	3	1.2
	여자	70	29.0	19	7.9	35	14.5	50	20.7	28	11.6	19	7.9	13	5.4	7	2.9	0	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65	51.6	12	9.5	7	5.6	15	11.9	17	13.5	7	5.6	2	1.6	0	0.0	1	0.8
	방학권	28	25.2	8	7.2	24	21.6	24	21.6	15	13.5	8	7.2	2	1.8	2	1.8	0	0.0
	창동권	44	24.6	22	12.3	31	17.3	35	19.6	17	9.5	13	7.3	8	4.5	7	3.9	2	1.1
	도봉권	31	36.9	5	6.0	11	13.1	18	21.4	6	7.1	4	4.8	8	9.5	1	1.2	0	0.0
	20대	32	43.8	6	8.2	5	6.8	9	12.3	7	9.6	7	9.6	4	5.5	3	4.1	0	0.0
연령대	30대	36	36.7	8	8.2	13	13.3	20	20.4	11	11.2	7	7.1	3	3.1	0	0.0	0	0.0
	40대	31	36.9	11	13.1	11	13.1	12	14.3	11	13.1	5	6.0	3	3.6	0	0.0	0	0.0
	50대	35	32.4	9	8.3	16	14.8	28	25.9	11	10.2	4	3.7	5	4.6	0	0.0	0	0.0
	60대	34	24.8	13	9.5	28	20.4	23	16.8	15	10.9	9	6.6	5	3.6	7	5.1	3	2.2
	청년층	78	37.9	19	9.2	24	11.7	37	18.0	22	10.7	16	7.8	7	3.4	3	1.5	0	0.0
생애 주기별	중장년	78	32.6	25	10.5	36	15.1	43	18.0	26	10.9	13	5.4	10	4.2	5	2.1	3	1.3
	노년	12	21.8	3	5.5	13	23.6	12	21.8	7	12.7	3	5.5	3	5.5	2	3.6	0	0.0
	일반군	108	45.6	15	6.3	24	10.1	37	15.6	19	8.0	14	5.9	12	5.1	7	3.0	1	0.4
은둔 수준	위험군	60	22.8	32	12.2	49	18.6	55	20.9	36	13.7	18	6.8	8	3.0	3	1.1	2	0.8
	계	168	33.6	47	9.4	73	14.6	92	18.4	55	11.0	32	6.4	20	4.0	10	2.0	3	0.6

5. 문화·여가 및 사회관계

- 응답자들의 타인과의 직접 만남을 살펴본 결과, 가족 및 친족/ 친구, 이웃, 학교·직장 동료 등/ 각종 동호회, 단체, 모임의 사람은 월 1~3회 이상, 주 1회 이상 만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사적 교류가 높은 편으로 확인됨.

[표 4-100] 타인과의 접촉 빈도(직접 만남) : 가족 및 친족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7	10.4	71	27.4	60	23.2	77	29.7	24	9.3
	여자	14	5.8	61	25.3	77	32.0	75	31.1	14	5.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0	7.9	36	28.6	30	23.8	48	38.1	2	1.6
	방학권	9	8.1	54	48.6	28	25.2	15	13.5	5	4.5
	창동권	21	11.7	22	12.3	59	33.0	72	40.2	5	2.8
	도봉권	1	1.2	20	23.8	20	23.8	17	20.2	26	31.0
연령대	20대	2	2.7	18	24.7	21	28.8	27	37.0	5	6.8
	30대	9	9.2	25	25.5	23	23.5	35	35.7	6	6.1
	40대	5	6.0	19	22.6	27	32.1	22	26.2	11	13.1
	50대	6	5.6	32	29.6	26	24.1	35	32.4	9	8.3
	60대	19	13.9	38	27.7	40	29.2	33	24.1	7	5.1
생애 주기별	청년	14	6.8	47	22.8	58	28.2	76	36.9	11	5.3
	중장년	19	7.9	66	27.6	64	26.8	66	27.6	24	10.0
	노년	8	14.5	19	34.5	15	27.3	10	18.2	3	5.5
은둔 수준	일반군	8	3.4	50	21.1	61	25.7	88	37.1	30	12.7
	위험군	33	12.5	82	31.2	76	28.9	64	24.3	8	3.0
계		41	8.2	132	26.4	137	27.4	152	30.4	38	7.6

[표 4-101] 타인과의 접촉 빈도(직접 만남) : 친구, 이웃, 학교/직장 동료 등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4	5.4	19	7.3	78	30.1	86	33.2	62	23.9
	여자	16	6.6	34	14.1	70	29.0	58	24.1	63	26.1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0	7.9	7	5.6	39	31.0	20	15.9	50	39.7
	방학권	7	6.3	8	7.2	35	31.5	38	34.2	23	20.7
	창동권	12	6.7	23	12.8	58	32.4	66	36.9	20	11.2
	도봉권	1	1.2	15	17.9	16	19.0	20	23.8	32	38.1
연령대	20대	1	1.4	2	2.7	21	28.8	21	28.8	28	38.4
	30대	9	9.2	6	6.1	32	32.7	22	22.4	29	29.6
	40대	4	4.8	5	6.0	21	25.0	31	36.9	23	27.4
	50대	6	5.6	19	17.6	28	25.9	35	32.4	20	18.5
	60대	10	7.3	21	15.3	46	33.6	35	25.5	25	18.2
생애 주기별	청년	13	6.3	11	5.3	61	29.6	56	27.2	65	31.6
	중장년	12	5.0	31	13.0	72	30.1	74	31.0	50	20.9
	노년	5	9.1	11	20.0	15	27.3	14	25.5	10	18.2
은둔 수준	일반군	3	1.3	10	4.2	43	18.1	72	30.4	109	46.0
	위험군	27	10.3	43	16.3	105	39.9	72	27.4	16	6.1
계		30	6.0	53	10.6	148	29.6	144	28.8	125	25.0

[표 4-102] 타인과의 접촉 빈도(직접 만남) : 동호회, 단체, 모임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65	25.1	60	23.2	71	27.4	60	23.2	3	1.2
	여자	71	29.5	51	21.2	60	24.9	59	24.5	0	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6	20.6	14	11.1	33	26.2	52	41.3	1	0.8
	방학권	25	22.5	35	31.5	33	29.7	17	15.3	1	0.9
	창동권	53	29.6	34	19.0	51	28.5	41	22.9	0	0.0
	도봉권	32	38.1	28	33.3	14	16.7	9	10.7	1	1.2
연령대	20대	18	24.7	20	27.4	14	19.2	21	28.8	0	0.0
	30대	33	33.7	16	16.3	27	27.6	20	20.4	2	2.0
	40대	17	20.2	23	27.4	20	23.8	24	28.6	0	0.0
	50대	30	27.8	21	19.4	30	27.8	26	24.1	1	0.9
	60대	38	27.7	31	22.6	40	29.2	28	20.4	0	0.0
생애 주기별	청년	61	29.6	46	22.3	48	23.3	49	23.8	2	1.0
	중장년	58	24.3	48	20.1	69	28.9	63	26.4	1	0.4
	노년	17	30.9	17	30.9	14	25.5	7	12.7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42	17.7	54	22.8	76	32.1	62	26.2	3	1.3
	위험군	94	35.7	57	21.7	55	20.9	57	21.7	0	0.0
계		136	27.2	111	22.2	131	26.2	119	23.8	3	0.6

□ 반면,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사람 등 공적 교류는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 공적 교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다만, 노인과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의 경우는 정책적 특성상 공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됨.

[표 4-103] 타인과의 접촉 빈도(직접 만남)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사람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3	70.7	39	15.1	22	8.5	14	5.4	1	0.4
	여자	161	66.8	41	17.0	28	11.6	10	4.1	1	0.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79	62.7	25	19.8	13	10.3	9	7.1	0	0.0
	방학권	68	61.3	25	22.5	11	9.9	6	5.4	1	0.9
	창동권	144	80.4	13	7.3	17	9.5	4	2.2	1	0.6
	도봉권	53	63.1	17	20.2	9	10.7	5	6.0	0	0.0
연령대	20대	54	74.0	8	11.0	9	12.3	1	1.4	1	1.4
	30대	75	76.5	15	15.3	4	4.1	4	4.1	0	0.0
	40대	65	77.4	11	13.1	6	7.1	2	2.4	0	0.0
	50대	72	66.7	21	19.4	11	10.2	4	3.7	0	0.0
	60대	78	56.9	25	18.2	20	14.6	13	9.5	1	0.7
생애 주기별	청년	160	77.7	23	11.2	17	8.3	5	2.4	1	0.5
	중장년	157	65.7	49	20.5	22	9.2	10	4.2	1	0.4
	노년	27	49.1	8	14.5	11	20.0	9	16.4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188	79.3	32	13.5	11	4.6	5	2.1	1	0.4
	위험군	156	59.3	48	18.3	39	14.8	19	7.2	1	0.4
계		344	68.8	80	16.0	50	10.0	24	4.8	2	0.4

□ 종교 모임과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등의 만남 빈도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4-104] 타인과의 접촉 빈도(직접 만남) : 종교 모임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2	70.3	28	10.8	33	12.7	16	6.2	-	-
	여자	165	68.5	21	8.7	33	13.7	22	9.1	-	-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67	53.2	11	8.7	34	27.0	14	11.1	-	-
	방학권	78	70.3	13	11.7	14	12.6	6	5.4	-	-
	창동권	141	78.8	14	7.8	15	8.4	9	5.0	-	-
	도봉권	61	72.6	11	13.1	3	3.6	9	10.7	-	-
연령대	20대	55	75.3	7	9.6	7	9.6	4	5.5	-	-
	30대	69	70.4	8	8.2	12	12.2	9	9.2	-	-
	40대	57	67.9	9	10.7	13	15.5	5	6.0	-	-
	50대	74	68.5	14	13.0	12	11.1	8	7.4	-	-
	60대	92	67.2	11	8.0	22	16.1	12	8.8	-	-
생애 주기별	청년	153	74.3	16	7.8	22	10.7	15	7.3	-	-
	중장년	154	64.4	33	13.8	37	15.5	15	6.3	-	-
	노년	40	72.7	0	0.0	7	12.7	8	14.5	-	-
은둔 수준	일반군	170	71.7	12	5.1	28	11.8	27	11.4	-	-
	위험군	177	67.3	37	14.1	38	14.4	11	4.2	-	-
계		347	69.4	49	9.8	66	13.2	38	7.6	-	-

[표 4-105] 타인과의 접촉 빈도(직접 만남) :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09	80.7	19	7.3	19	7.3	12	4.6	0	0.0
	여자	195	80.9	15	6.2	15	6.2	14	5.8	2	0.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7	69.0	8	6.3	14	11.1	17	13.5	0	0.0
	방학권	72	64.9	15	13.5	16	14.4	7	6.3	1	0.9
	창동권	171	95.5	4	2.2	2	1.1	2	1.1	0	0.0
	도봉권	74	88.1	7	8.3	2	2.4	0	0.0	1	1.2
연령대	20대	56	76.7	10	13.7	2	2.7	4	5.5	1	1.4
	30대	79	80.6	7	7.1	6	6.1	6	6.1	0	0.0
	40대	67	79.8	6	7.1	8	9.5	3	3.6	0	0.0
	50대	87	80.6	6	5.6	8	7.4	6	5.6	1	0.9
	60대	115	83.9	5	3.6	10	7.3	7	5.1	0	0.0
생애 주기별	청년	167	81.1	19	9.2	9	4.4	10	4.9	1	0.5
	중장년	189	79.1	14	5.9	20	8.4	15	6.3	1	0.4
	노년	48	87.3	1	1.8	5	9.1	1	1.8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206	86.9	14	5.9	8	3.4	7	3.0	2	0.8
	위험군	198	75.3	20	7.6	26	9.9	19	7.2	0	0.0
계		404	80.8	34	6.8	34	6.8	26	5.2	2	0.4

- 응답자들의 통화 빈도 역시, 직접 만남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가족 및 친족/ 친구, 이웃, 학교·직장 동료 등/ 동호회, 단체, 모임의 사적 교류에서는 공통적으로 주 1회 이상의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교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06] 타인과의 접촉 빈도(통화) : 가족 및 친족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3	8.9	31	12.0	74	28.6	95	36.7	36	13.9
	여자	12	5.0	30	12.4	59	24.5	107	44.4	33	13.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6	4.8	20	15.9	38	30.2	55	43.7	7	5.6
	방학권	5	4.5	20	18.0	43	38.7	37	33.3	6	5.4
	창동권	22	12.3	3	1.7	36	20.1	88	49.2	30	16.8
	도봉권	2	2.4	18	21.4	16	19.0	22	26.2	26	31.0
연령대	20대	1	1.4	7	9.6	11	15.1	38	52.1	16	21.9
	30대	8	8.2	8	8.2	23	23.5	43	43.9	16	16.3
	40대	4	4.8	5	6.0	32	38.1	29	34.5	14	16.7
	50대	4	3.7	20	18.5	29	26.9	45	41.7	10	9.3
	60대	18	13.1	21	15.3	38	27.7	47	34.3	13	9.5
생애 주기별	청년	13	6.3	15	7.3	46	22.3	97	47.1	35	17.0
	중장년	14	5.9	33	13.8	72	30.1	91	38.1	29	12.1
	노년	8	14.5	13	23.6	15	27.3	14	25.5	5	9.1
은둔 수준	일반군	6	2.5	15	6.3	68	28.7	110	46.4	38	16.0
	위험군	29	11.0	46	17.5	65	24.7	92	35.0	31	11.8
계		35	7.0	61	12.2	133	26.6	202	40.4	69	13.8

[표 4-107] 타인과의 접촉 빈도(통화) : 친구, 이웃, 학교/직장 동료 등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9	7.3	23	8.9	63	24.3	112	43.2	42	16.2
	여자	24	10.0	30	12.4	56	23.2	96	39.8	35	14.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2	9.5	9	7.1	30	23.8	63	50.0	12	9.5
	방학권	6	5.4	5	4.5	24	21.6	58	52.3	18	16.2
	창동권	18	10.1	27	15.1	52	29.1	60	33.5	22	12.3
	도봉권	7	8.3	12	14.3	13	15.5	27	32.1	25	29.8
연령대	20대	3	4.1	1	1.4	17	23.3	32	43.8	20	27.4
	30대	11	11.2	12	12.2	17	17.3	41	41.8	17	17.3
	40대	6	7.1	4	4.8	17	20.2	39	46.4	18	21.4
	50대	10	9.3	14	13.0	28	25.9	44	40.7	12	11.1
	60대	13	9.5	22	16.1	40	29.2	52	38.0	10	7.3
생애 주기별	청년	17	8.3	15	7.3	44	21.4	89	43.2	41	19.9
	중장년	20	8.4	25	10.5	59	24.7	103	43.1	32	13.4
	노년	6	10.9	13	23.6	16	29.1	16	29.1	4	7.3
은둔 수준	일반군	8	3.4	11	4.6	36	15.2	132	55.7	50	21.1
	위험군	35	13.3	42	16.0	83	31.6	76	28.9	27	10.3
계		43	8.6	53	10.6	119	23.8	208	41.6	77	15.4

[표 4-108] 타인과의 접촉 빈도(통화) : 동호회, 단체, 모임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76	29.3	57	22.0	53	20.5	70	27.0	3	1.2
	여자	86	35.7	51	21.2	56	23.2	45	18.7	3	1.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5	27.8	11	8.7	28	22.2	51	40.5	1	0.8
	방학권	35	31.5	29	26.1	26	23.4	18	16.2	3	2.7
	창동권	58	32.4	37	20.7	42	23.5	42	23.5	0	0.0
	도봉권	34	40.5	31	36.9	13	15.5	4	4.8	2	2.4
연령대	20대	27	37.0	15	20.5	14	19.2	15	20.5	2	2.7
	30대	45	45.9	15	15.3	14	14.3	23	23.5	1	1.0
	40대	21	25.0	21	25.0	21	25.0	20	23.8	1	1.2
	50대	29	26.9	21	19.4	26	24.1	30	27.8	2	1.9
	60대	40	29.2	36	26.3	34	24.8	27	19.7	0	0.0
생애 주기별	청년	83	40.3	40	19.4	36	17.5	44	21.4	3	1.5
	중장년	61	25.5	52	21.8	61	25.5	62	25.9	3	1.3
	노년	18	32.7	16	29.1	12	21.8	9	16.4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61	25.7	59	24.9	51	21.5	61	25.7	5	2.1
	위험군	101	38.4	49	18.6	58	22.1	54	20.5	1	0.4
계		162	32.4	108	21.6	109	21.8	115	23.0	6	1.2

□ 반면,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사람 등 공적 교류는 직접 만남과 마찬가지로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 공적 교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다만, 통화 빈도 역시 노인과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의 경우는 정책적 특성상 공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파악됨.

[표 4-109] 타인과의 접촉 빈도(통화)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사람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4	71.0	33	12.7	30	11.6	11	4.2	1	0.4
	여자	162	67.2	36	14.9	24	10.0	19	7.9	0	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79	62.7	15	11.9	20	15.9	11	8.7	1	0.8
	방학권	68	61.3	22	19.8	14	12.6	7	6.3	0	0.0
	창동권	142	79.3	17	9.5	13	7.3	7	3.9	0	0.0
	도봉권	57	67.9	15	17.9	7	8.3	5	6.0	0	0.0
연령대	20대	59	80.8	3	4.1	7	9.6	4	5.5	0	0.0
	30대	75	76.5	11	11.2	8	8.2	4	4.1	0	0.0
	40대	62	73.8	13	15.5	6	7.1	3	3.6	0	0.0
	50대	75	69.4	14	13.0	11	10.2	8	7.4	0	0.0
	60대	75	54.7	28	20.4	22	16.1	11	8.0	1	0.7
생애 주기별	청년	163	79.1	19	9.2	15	7.3	9	4.4	0	0.0
	중장년	157	65.7	38	15.9	26	10.9	18	7.5	0	0.0
	노년	26	47.3	12	21.8	13	23.6	3	5.5	1	1.8
은둔 수준	일반군	189	79.7	31	13.1	10	4.2	6	2.5	1	0.4
	위험군	157	59.7	38	14.4	44	16.7	24	9.1	0	0.0
계		346	69.2	69	13.8	54	10.8	30	6.0	1	0.2

□ 종교 모임과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등의 통화 빈도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4-110] 타인과의 접촉 빈도(통화) : 종교 모임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3	70.7	36	13.9	21	8.1	19	7.3	0	0.0
	여자	156	64.7	31	12.9	29	12.0	24	10.0	1	0.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72	57.1	18	14.3	15	11.9	21	16.7	0	0.0
	방학권	77	69.4	16	14.4	11	9.9	7	6.3	0	0.0
	창동권	127	70.9	21	11.7	20	11.2	10	5.6	1	0.6
	도봉권	63	75.0	12	14.3	4	4.8	5	6.0	0	0.0
연령대	20대	57	78.1	11	15.1	2	2.7	3	4.1	0	0.0
	30대	70	71.4	11	11.2	9	9.2	8	8.2	0	0.0
	40대	51	60.7	17	20.2	10	11.9	5	6.0	1	1.2
	50대	72	66.7	17	15.7	9	8.3	10	9.3	0	0.0
	60대	89	65.0	11	8.0	20	14.6	17	12.4	0	0.0
생애 주기별	청년	151	73.3	28	13.6	12	5.8	14	6.8	1	0.5
	중장년	149	62.3	38	15.9	29	12.1	23	9.6	0	0.0
	노년	39	70.9	1	1.8	9	16.4	6	10.9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179	75.5	17	7.2	19	8.0	22	9.3	0	0.0
	위험군	160	60.8	50	19.0	31	11.8	21	8.0	1	0.4
계		339	67.8	67	13.4	50	10.0	43	8.6	1	0.2

[표 4-111] 타인과의 접촉 빈도(통화) :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90	78.0	41	8.2	42	8.4	25	5.0	2	0.4
	여자	205	79.2	17	6.6	25	9.7	11	4.2	1	0.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85	76.8	24	10.0	17	7.1	14	5.8	1	0.4
	방학권	86	68.3	6	4.8	17	13.5	16	12.7	1	0.8
	창동권	70	63.1	16	14.4	19	17.1	6	5.4	0	0.0
	도봉권	162	90.5	9	5.0	5	2.8	3	1.7	0	0.0
연령대	20대	72	85.7	10	11.9	1	1.2	0	0.0	1	1.2
	30대	53	72.6	8	11.0	8	11.0	4	5.5	0	0.0
	40대	77	78.6	6	6.1	7	7.1	8	8.2	0	0.0
	50대	64	76.2	7	8.3	8	9.5	4	4.8	1	1.2
	60대	83	76.9	13	12.0	10	9.3	2	1.9	0	0.0
생애 주기별	청년	113	82.5	7	5.1	9	6.6	7	5.1	1	0.7
	중장년	160	77.7	16	7.8	16	7.8	13	6.3	1	0.5
	노년	182	76.2	24	10.0	23	9.6	10	4.2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48	87.3	1	1.8	3	5.5	2	3.6	1	1.8
	위험군	199	84.0	20	8.4	9	3.8	8	3.4	1	0.4
계		191	72.6	21	8.0	33	12.5	17	6.5	1	0.4

- 응답자들의 문자 및 온라인 메신저 활용 역시, 직접 만남/통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 가족 및 친족/ 친구, 이웃, 학교·직장 동료 등/ 동호회, 단체, 모임의 사적 교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통화 및 문자/온라인 메신저 등 공간적 제약이 적어질수록 사적 교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112] 타인과의 접촉 빈도(문자/온라인 메신저) : 가족 및 친족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3	6.6	59	11.8	104	20.8	168	33.6	136	27.2
	여자	20	7.7	30	11.6	60	23.2	84	32.4	65	25.1
거주지 권역별	상문권	13	5.4	29	12.0	44	18.3	84	34.9	71	29.5
	방학권	5	4.0	19	15.1	22	17.5	32	25.4	48	38.1
	창동권	5	4.5	14	12.6	47	42.3	36	32.4	9	8.1
	도봉권	21	11.7	9	5.0	23	12.8	78	43.6	48	26.8
연령대	20대	2	2.4	17	20.2	12	14.3	22	26.2	31	36.9
	30대	1	1.4	3	4.1	14	19.2	24	32.9	31	42.5
	40대	8	8.2	9	9.2	27	27.6	23	23.5	31	31.6
	50대	4	4.8	10	11.9	14	16.7	28	33.3	28	33.3
	60대	5	4.6	22	20.4	15	13.9	41	38.0	25	23.1
생애 주기별	청년	15	10.9	15	10.9	34	24.8	52	38.0	21	15.3
	중장년	12	5.8	15	7.3	47	22.8	63	30.6	69	33.5
	노년	15	6.3	34	14.2	43	18.0	89	37.2	58	24.3
은둔 수준	일반군	6	10.9	10	18.2	14	25.5	16	29.1	9	16.4
	위험군	4	1.7	12	5.1	45	19.0	81	34.2	95	40.1
계		29	11.0	47	17.9	59	22.4	87	33.1	41	15.6

[표 4-113] 타인과의 접촉 빈도(문자/온라인 메신저): 친구, 이웃, 학교/직장 동료 등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9	7.3	20	7.7	54	20.8	95	36.7	71	27.4
	여자	15	6.2	27	11.2	48	19.9	76	31.5	75	31.1
거주지 권역별	상문권	8	6.3	6	4.8	28	22.2	34	27.0	50	39.7
	방학권	7	6.3	9	8.1	19	17.1	55	49.5	21	18.9
	창동권	16	8.9	17	9.5	42	23.5	54	30.2	50	27.9
	도봉권	3	3.6	15	17.9	13	15.5	28	33.3	25	29.8
연령대	20대	2	2.7	2	2.7	11	15.1	24	32.9	34	46.6
	30대	8	8.2	8	8.2	16	16.3	28	28.6	38	38.8
	40대	5	6.0	0	0.0	21	25.0	28	33.3	30	35.7
	50대	7	6.5	17	15.7	25	23.1	37	34.3	22	20.4
	60대	12	8.8	20	14.6	29	21.2	54	39.4	22	16.1
생애 주기별	청년	13	6.3	10	4.9	37	18.0	63	30.6	83	40.3
	중장년	16	6.7	23	9.6	53	22.2	93	38.9	54	22.6
	노년	5	9.1	14	25.5	12	21.8	15	27.3	9	16.4
은둔 수준	일반군	3	1.3	6	2.5	29	12.2	92	38.8	107	45.1
	위험군	31	11.8	41	15.6	73	27.8	79	30.0	39	14.8
계		34	6.8	47	9.4	102	20.4	171	34.2	146	29.2

[표 4-114] 타인과의 접촉 빈도(문자/온라인 메신저) : 동호회, 단체, 모임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75	29.0	62	23.9	51	19.7	44	17.0	27	10.4
	여자	76	31.5	51	21.2	55	22.8	36	14.9	23	9.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8	22.2	10	7.9	19	15.1	34	27.0	35	27.8
	방학권	33	29.7	42	37.8	23	20.7	12	10.8	1	.9
	창동권	55	30.7	36	20.1	52	29.1	26	14.5	10	5.6
	도봉권	35	41.7	25	29.8	12	14.3	8	9.5	4	4.8
연령대	20대	22	30.1	17	23.3	12	16.4	11	15.1	11	15.1
	30대	38	38.8	15	15.3	19	19.4	15	15.3	11	11.2
	40대	20	23.8	22	26.2	16	19.0	18	21.4	8	9.5
	50대	30	27.8	26	24.1	24	22.2	17	15.7	11	10.2
	60대	41	29.9	33	24.1	35	25.5	19	13.9	9	6.6
생애 주기별	청년	69	33.5	41	19.9	37	18.0	35	17.0	24	11.7
	중장년	64	26.8	55	23.0	59	24.7	38	15.9	23	9.6
	노년	18	32.7	17	30.9	10	18.2	7	12.7	3	5.5
은둔 수준	일반군	56	23.6	51	21.5	42	17.7	42	17.7	46	19.4
	위험군	95	36.1	62	23.6	64	24.3	38	14.4	4	1.5
계		151	30.2	113	22.6	106	21.2	80	16.0	50	10.0

□ 반면,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사람 등 공적 교류는 일관적으로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 공적 교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다만, 정책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노인의 경우는 공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4-115] 타인과의 접촉 빈도(문자/온라인 메신저)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사람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7	72.2	30	11.6	23	8.9	15	5.8	4	1.5
	여자	167	69.3	22	9.1	30	12.4	20	8.3	2	0.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3	65.9	10	7.9	17	13.5	13	10.3	3	2.4
	방학권	68	61.3	20	18.0	13	11.7	8	7.2	2	1.8
	창동권	146	81.6	12	6.7	14	7.8	7	3.9	0	0.0
	도봉권	57	67.9	10	11.9	9	10.7	7	8.3	1	1.2
연령대	20대	60	82.2	2	2.7	6	8.2	4	5.5	1	1.4
	30대	78	79.6	11	11.2	8	8.2	1	1.0	0	0.0
	40대	62	73.8	7	8.3	6	7.1	8	9.5	1	1.2
	50대	77	71.3	16	14.8	8	7.4	6	5.6	1	0.9
	60대	77	56.2	16	11.7	25	18.2	16	11.7	3	2.2
생애 주기별	청년	167	81.1	16	7.8	15	7.3	7	3.4	1	0.5
	중장년	163	68.2	29	12.1	24	10.0	21	8.8	2	0.8
	노년	24	43.6	7	12.7	14	25.5	7	12.7	3	5.5
은둔 수준	일반군	189	79.7	22	9.3	14	5.9	7	3.0	5	2.1
	위험군	165	62.7	30	11.4	39	14.8	28	10.6	1	0.4
계		354	70.8	52	10.4	53	10.6	35	7.0	6	1.2

□ 종교 모임과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등과의 교류는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4-116] 타인과의 접촉 빈도(문자/온라인 메신저) : 종교 모임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90	73.4	19	7.3	25	9.7	20	7.7	5	1.9
	여자	154	63.9	27	11.2	27	11.2	27	11.2	6	2.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68	54.0	9	7.1	19	15.1	24	19.0	6	4.8
	방학권	80	72.1	9	8.1	14	12.6	7	6.3	1	0.9
	창동권	130	72.6	19	10.6	16	8.9	11	6.1	3	1.7
	도봉권	66	78.6	9	10.7	3	3.6	5	6.0	1	1.2
연령대	20대	59	80.8	3	4.1	6	8.2	5	6.8	0	0.0
	30대	70	71.4	7	7.1	9	9.2	7	7.1	5	5.1
	40대	56	66.7	7	8.3	10	11.9	10	11.9	1	1.2
	50대	72	66.7	12	11.1	12	11.1	10	9.3	2	1.9
	60대	87	63.5	17	12.4	15	10.9	15	10.9	3	2.2
생애 주기별	청년	154	74.8	14	6.8	19	9.2	14	6.8	5	2.4
	중장년	152	63.6	28	11.7	28	11.7	27	11.3	4	1.7
	노년	38	69.1	4	7.3	5	9.1	6	10.9	2	3.6
은둔 수준	일반군	178	75.1	13	5.5	18	7.6	19	8.0	9	3.8
	위험군	166	63.1	33	12.5	34	12.9	28	10.6	2	0.8
계		344	68.8	46	9.2	52	10.4	47	9.4	11	2.2

[표 4-117] 타인과의 접촉 빈도(문자/온라인 메신저) : SNS,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n=500)

구분		거의 안함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회 이상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99	76.8	23	8.9	19	7.3	16	6.2	2	0.8
	여자	181	75.1	26	10.8	12	5.0	17	7.1	5	2.1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3	65.9	5	4.0	17	13.5	18	14.3	3	2.4
	방학권	66	59.5	23	20.7	8	7.2	13	11.7	1	0.9
	창동권	156	87.2	14	7.8	5	2.8	2	1.1	2	1.1
	도봉권	75	89.3	7	8.3	1	1.2	0	0.0	1	1.2
연령대	20대	48	65.8	10	13.7	7	9.6	8	11.0	0	0.0
	30대	75	76.5	6	6.1	5	5.1	8	8.2	4	4.1
	40대	63	75.0	9	10.7	5	6.0	6	7.1	1	1.2
	50대	84	77.8	12	11.1	8	7.4	3	2.8	1	0.9
	60대	110	80.3	12	8.8	6	4.4	8	5.8	1	0.7
생애 주기별	청년	151	73.3	21	10.2	13	6.3	16	7.8	5	2.4
	중장년	184	77.0	24	10.0	17	7.1	13	5.4	1	0.4
	노년	45	81.8	4	7.3	1	1.8	4	7.3	1	1.8
은둔 수준	일반군	198	83.5	19	8.0	8	3.4	9	3.8	3	1.3
	위험군	182	69.2	30	11.4	23	8.7	24	9.1	4	1.5
계		380	76.0	49	9.8	31	6.2	33	6.6	7	1.4

□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공적 자원보다는 사적 자원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 구체적으로, 나에게 관심과 지지를 주고,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주며, 문화·여가 활동을 함께 하고, 고민을 함께 상의하는 대상으로는 공통적으로 친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음식 등을 나누어주거나 필요시 목돈을 빌려주며,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거나 간호해 준다는 문항에서는 가족 및 친척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또한, 아플 때 간호나 여가활동 등 근거리에서만 가능한 사회적 지지일수록 지지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4-118〉 ~ 〈표 4-124〉 참조).

[표 4-118]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나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사람

(n=500)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 모임		온라인 지인		기타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69	26.6	125	48.3	25	9.7	12	4.6	13	5.0	4	1.5	3	1.2	0	0.0	8	3.1
	여자	93	38.6	94	39.0	13	5.4	7	2.9	6	2.5	6	2.5	1	0.4	1	0.4	20	8.3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1	32.5	45	35.7	6	4.8	12	9.5	9	7.1	5	4.0	3	2.4	0	0.0	5	4.0
	방학권	23	20.7	65	58.6	10	9.0	5	4.5	4	3.6	0	0.0	0	0.0	0	0.0	4	3.6
	창동권	64	35.8	79	44.1	16	8.9	2	1.1	6	3.4	3	1.7	1	0.6	1	0.6	7	3.9
	도봉권	34	40.5	30	35.7	6	7.1	0	0.0	0	0.0	2	2.4	0	0.0	0	0.0	12	14.3
연령대	20대	38	52.1	24	32.9	5	6.8	2	2.7	3	4.1	0	0.0	0	0.0	0	0.0	1	1.4
	30대	30	30.6	49	50.0	7	7.1	3	3.1	1	1.0	1	1.0	1	1.0	1	1.0	5	5.1
	40대	26	31.0	38	45.2	7	8.3	4	4.8	2	2.4	3	3.6	0	0.0	0	0.0	4	4.8
	50대	33	30.6	52	48.1	8	7.4	6	5.6	2	1.9	2	1.9	1	0.9	0	0.0	4	3.7
	60대	35	25.5	56	40.9	11	8.0	4	2.9	11	8.0	4	2.9	2	1.5	0	0.0	14	10.2
	청년	78	37.9	92	44.7	15	7.3	5	2.4	4	1.9	2	1.0	1	0.5	1	0.5	8	3.9
생애 주기별	중장년	71	29.7	110	46.0	19	7.9	13	5.4	9	3.8	6	2.5	1	0.4	0	0.0	10	4.2
	노년	13	23.6	17	30.9	4	7.3	1	1.8	6	10.9	2	3.6	2	3.6	0	0.0	10	18.2
은둔 수준	일반군	98	41.4	106	44.7	18	7.6	4	1.7	5	2.1	3	1.3	0	0.0	1	0.4	2	0.8
	위험군	64	24.3	113	43.0	20	7.6	15	5.7	14	5.3	7	2.7	4	1.5	0	0.0	26	9.9
	계	162	32.4	219	43.8	38	7.6	19	3.8	19	3.8	10	2.0	4	0.8	1	0.2	28	5.6

[표 4-119]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혼자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고 고민이 있으면 함께 상의

(n=500)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 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2	20.1	117	45.2	35	13.5	15	5.8	15	5.8	6	2.3	5	1.9	14	5.4
	여자	60	24.9	90	37.3	40	16.6	11	4.6	12	5.0	3	1.2	7	2.9	18	7.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7	21.4	59	46.8	8	6.3	6	4.8	7	5.6	4	3.2	6	4.8	9	7.1
	방학권	23	20.7	45	40.5	15	13.5	10	9.0	6	5.4	3	2.7	6	5.4	3	2.7
	창동권	47	26.3	58	32.4	44	24.6	9	5.0	8	4.5	1	0.6	0	0.0	12	6.7
	도봉권	15	17.9	45	53.6	8	9.5	1	1.2	6	7.1	1	1.2	0	0.0	8	9.5
연령대	20대	22	30.1	31	42.5	10	13.7	2	2.7	2	2.7	1	1.4	4	5.5	1	1.4
	30대	33	33.7	40	40.8	8	8.2	4	4.1	3	3.1	1	1.0	2	2.0	7	7.1
	40대	14	16.7	42	50.0	17	20.2	5	6.0	1	1.2	1	1.2	2	2.4	2	2.4
	50대	19	17.6	48	44.4	18	16.7	7	6.5	5	4.6	1	0.9	1	0.9	9	8.3
	60대	24	17.5	46	33.6	22	16.1	8	5.8	16	11.7	5	3.6	3	2.2	13	9.5
생애 주기별	청년	64	31.1	83	40.3	27	13.1	8	3.9	6	2.9	2	1.0	6	2.9	10	4.9
	중장년	39	16.3	104	43.5	44	18.4	15	6.3	12	5.0	5	2.1	6	2.5	14	5.9
	노년	9	16.4	20	36.4	4	7.3	3	5.5	9	16.4	2	3.6	0	0.0	8	14.5
은둔 수준	일반군	68	28.7	123	51.9	28	11.8	4	1.7	6	2.5	4	1.7	2	0.8	2	0.8
	위험군	44	16.7	84	31.9	47	17.9	22	8.4	21	8.0	5	1.9	10	3.8	30	11.4
계		112	22.4	207	41.4	75	15.0	26	5.2	27	5.4	9	1.8	12	2.4	32	6.4

[표 4-120]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생활용품, 음식 등을 나누어 줌

(n=500)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 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83	32.0	82	31.7	19	7.3	27	10.4	16	6.2	4	1.5	11	4.2	17	6.6
	여자	81	33.6	66	27.4	30	12.4	18	7.5	8	3.3	8	3.3	9	3.7	21	8.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0	23.8	41	32.5	8	6.3	18	14.3	5	4.0	6	4.8	10	7.9	8	6.3
	방학권	37	33.3	38	34.2	9	8.1	8	7.2	4	3.6	0	0.0	9	8.1	6	5.4
	창동권	57	31.8	48	26.8	26	14.5	16	8.9	9	5.0	3	1.7	1	0.6	19	10.6
	도봉권	40	47.6	21	25.0	6	7.1	3	3.6	6	7.1	3	3.6	0	0.0	5	6.0
연령대	20대	37	50.7	21	28.8	5	6.8	4	5.5	1	1.4	1	1.4	0	0.0	4	5.5
	30대	39	39.8	22	22.4	10	10.2	5	5.1	2	2.0	1	1.0	7	7.1	12	12.2
	40대	25	29.8	27	32.1	11	13.1	7	8.3	1	1.2	1	1.2	6	7.1	6	7.1
	50대	33	30.6	40	37.0	10	9.3	11	10.2	2	1.9	1	0.9	3	2.8	8	7.4
생애 주기별	60대	30	21.9	38	27.7	13	9.5	18	13.1	18	13.1	8	5.8	4	2.9	8	5.8
	청년	85	41.3	57	27.7	19	9.2	11	5.3	4	1.9	3	1.5	7	3.4	20	9.7
	중장년	67	28.0	80	33.5	24	10.0	25	10.5	10	4.2	6	2.5	12	5.0	15	6.3
	노년	12	21.8	11	20.0	6	10.9	9	16.4	10	18.2	3	5.5	1	1.8	3	5.5
은둔 수준	일반군	98	41.4	77	32.5	19	8.0	19	8.0	7	3.0	8	3.4	2	0.8	7	3.0
	위험군	66	25.1	71	27.0	30	11.4	26	9.9	17	6.5	4	1.5	18	6.8	31	11.8
계		164	32.8	148	29.6	49	9.8	45	9.0	24	4.8	12	2.4	20	4.0	38	7.6

[표 4-121]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필요시 목돈을 빌려 줌

(n=500)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71	27.4	79	30.5	28	10.8	11	4.2	3	1.2	6	2.3	9	3.5	52	20.1
	여자	83	34.4	67	27.8	13	5.4	12	5.0	2	0.8	1	0.4	8	3.3	55	22.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2	33.3	40	31.7	4	3.2	6	4.8	2	1.6	3	2.4	11	8.7	18	14.3
	방학권	37	33.3	41	36.9	10	9.0	7	6.3	2	1.8	3	2.7	4	3.6	7	6.3
	창동권	59	33.0	46	25.7	26	14.5	10	5.6	1	0.6	0	0.0	2	1.1	35	19.6
	도봉권	16	19.0	19	22.6	1	1.2	0	0.0	0	0.0	1	1.2	0	0.0	47	56.0
연령대	20대	37	50.7	13	17.8	6	8.2	2	2.7	1	1.4	2	2.7	2	2.7	10	13.7
	30대	38	38.8	22	22.4	6	6.1	4	4.1	3	3.1	1	1.0	1	1.0	23	23.5
	40대	28	33.3	28	33.3	4	4.8	2	2.4	0	0.0	2	2.4	5	6.0	15	17.9
	50대	32	29.6	32	29.6	13	12.0	6	5.6	0	0.0	1	0.9	3	2.8	21	19.4
	60대	19	13.9	51	37.2	12	8.8	9	6.6	1	0.7	1	0.7	6	4.4	38	27.7
	청년	89	43.2	43	20.9	15	7.3	7	3.4	4	1.9	3	1.5	4	1.9	41	19.9
생애 주기별	중장년	60	25.1	84	35.1	25	10.5	14	5.9	0	0.0	3	1.3	12	5.0	41	17.2
	노년	5	9.1	19	34.5	1	1.8	2	3.6	1	1.8	1	1.8	1	1.8	25	45.5
은둔 수준	일반군	94	39.7	85	35.9	13	5.5	5	2.1	2	0.8	2	0.8	3	1.3	33	13.9
	위험군	60	22.8	61	23.2	28	10.6	18	6.8	3	1.1	5	1.9	14	5.3	74	28.1
계		154	30.8	146	29.2	41	8.2	23	4.6	5	1.0	7	1.4	17	3.4	107	21.4

[표 4-122]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함께 해줌

(n=500)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6	17.8	122	47.1	37	14.3	17	6.6	12	4.6	7	2.7	3	1.2	15	5.8
	여자	56	23.2	112	46.5	15	6.2	17	7.1	3	1.2	5	2.1	6	2.5	27	11.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7	13.5	72	57.1	5	4.0	7	5.6	5	4.0	6	4.8	6	4.8	8	6.3
	방학권	20	18.0	49	44.1	15	13.5	12	10.8	5	4.5	2	1.8	2	1.8	6	5.4
	창동권	55	30.7	58	32.4	25	14.0	15	8.4	5	2.8	2	1.1	1	.6	18	10.1
	도봉권	10	11.9	55	65.5	7	8.3	0	0.0	0	0.0	2	2.4	0	0.0	10	11.9
연령대	20대	20	27.4	36	49.3	5	6.8	5	6.8	1	1.4	1	1.4	3	4.1	2	2.7
	30대	20	20.4	50	51.0	9	9.2	5	5.1	1	1.0	1	1.0	2	2.0	10	10.2
	40대	19	22.6	43	51.2	12	14.3	5	6.0	1	1.2	0	0.0	2	2.4	2	2.4
	50대	23	21.3	43	39.8	17	15.7	9	8.3	3	2.8	1	0.9	1	0.9	11	10.2
	60대	20	14.6	62	45.3	9	6.6	10	7.3	9	6.6	9	6.6	1	0.7	17	12.4
생애 주기별	청년	52	25.2	99	48.1	20	9.7	12	5.8	2	1.0	2	1.0	6	2.9	13	6.3
	중장년	45	18.8	110	46.0	28	11.7	19	7.9	9	3.8	5	2.1	2	0.8	21	8.8
	노년	5	9.1	25	45.5	4	7.3	3	5.5	4	7.3	5	9.1	1	1.8	8	14.5
은둔 수준	일반군	48	20.3	147	62.0	19	8.0	7	3.0	4	1.7	8	3.4	1	0.4	3	1.3
	위험군	54	20.5	87	33.1	33	12.5	27	10.3	11	4.2	4	1.5	8	3.0	39	14.8
계		102	20.4	234	46.8	52	10.4	34	6.8	15	3.0	12	2.4	9	1.8	42	8.4

[표 4-123]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고 간호

(n=500)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96	37.1	81	31.3	17	6.6	15	5.8	6	2.3	4	1.5	8	3.1	32	12.4
	여자	93	38.6	72	29.9	16	6.6	7	2.9	11	4.6	2	0.8	3	1.2	37	15.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7	29.4	47	37.3	6	4.8	12	9.5	1	0.8	3	2.4	8	6.3	12	9.5
	방학권	24	21.6	51	45.9	12	10.8	5	4.5	7	6.3	1	0.9	2	1.8	9	8.1
	창동권	85	47.5	43	24.0	13	7.3	5	2.8	3	1.7	1	0.6	1	0.6	28	15.6
	도봉권	43	51.2	12	14.3	2	2.4	0	0.0	6	7.1	1	1.2	0	0.0	20	23.8
연령대	20대	38	52.1	20	27.4	3	4.1	2	2.7	2	2.7	0	0.0	2	2.7	6	8.2
	30대	46	46.9	24	24.5	4	4.1	4	4.1	0	0.0	2	2.0	2	2.0	16	16.3
	40대	31	36.9	28	33.3	9	10.7	5	6.0	2	2.4	0	0.0	2	2.4	7	8.3
	50대	43	39.8	32	29.6	7	6.5	7	6.5	2	1.9	1	0.9	1	0.9	15	13.9
생애 주기별	60대	31	22.6	49	35.8	10	7.3	4	2.9	11	8.0	3	2.2	4	2.9	25	18.2
	청년	97	47.1	59	28.6	10	4.9	6	2.9	2	1.0	2	1.0	4	1.9	26	12.6
	중장년	78	32.6	83	34.7	20	8.4	15	6.3	9	3.8	2	0.8	4	1.7	28	11.7
	노년	14	25.5	11	20.0	3	5.5	1	1.8	6	10.9	2	3.6	3	5.5	15	27.3
은둔 수준	일반군	105	44.3	94	39.7	14	5.9	5	2.1	4	1.7	3	1.3	3	1.3	9	3.8
	위험군	84	31.9	59	22.4	19	7.2	17	6.5	13	4.9	3	1.1	8	3.0	60	22.8
계		189	37.8	153	30.6	33	6.6	22	4.4	17	3.4	6	1.2	11	2.2	69	13.8

[표 4-124]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문화·여가 활동을 함께 함

(n=500)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7	14.3	132	51.0	31	12.0	8	3.1	15	5.8	3	1.2	11	4.2	22	8.5
	여자	37	15.4	123	51.0	17	7.1	13	5.4	4	1.7	1	0.4	13	5.4	33	13.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	6.3	74	58.7	4	3.2	6	4.8	9	7.1	1	0.8	13	10.3	11	8.7
	방학권	11	9.9	57	51.4	13	11.7	9	8.1	3	2.7	2	1.8	7	6.3	9	8.1
	창동권	50	27.9	63	35.2	28	15.6	6	3.4	6	3.4	1	0.6	3	1.7	22	12.3
	도봉권	5	6.0	61	72.6	3	3.6	0	0.0	1	1.2	0	0.0	1	1.2	13	15.5
연령대	20대	16	21.9	34	46.6	8	11.0	3	4.1	2	2.7	0	0.0	5	6.8	5	6.8
	30대	17	17.3	54	55.1	7	7.1	0	0.0	2	2.0	0	0.0	7	7.1	11	11.2
	40대	11	13.1	52	61.9	7	8.3	2	2.4	3	3.6	0	0.0	5	6.0	4	4.8
	50대	13	12.0	49	45.4	17	15.7	8	7.4	2	1.9	0	0.0	2	1.9	17	15.7
	60대	17	12.4	66	48.2	9	6.6	8	5.8	10	7.3	4	2.9	5	3.6	18	13.1
	청년	40	19.4	108	52.4	19	9.2	4	1.9	4	1.9	0	0.0	12	5.8	19	9.2
생애 주기별	중장년	29	12.1	115	48.1	29	12.1	16	6.7	9	3.8	2	0.8	11	4.6	28	11.7
	노년	5	9.1	32	58.2	0	0.0	1	1.8	6	10.9	2	3.6	1	1.8	8	14.5
	일반군	26	11.0	171	72.2	20	8.4	0	0.0	7	3.0	2	0.8	7	3.0	4	1.7
은둔 수준	위험군	48	18.3	84	31.9	28	10.6	21	8.0	12	4.6	2	0.8	17	6.5	51	19.4
	계	74	14.8	255	51.0	48	9.6	21	4.2	19	3.8	4	0.8	24	4.8	55	11.0

-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TV 또는 인터넷 방송 등 시청이 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과의 대화 또는 모임이 23.4%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25]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 1순위

(n=500)

구분	가족, 친구, 지인과의 대화 또는 모임	TV 또는 인터넷 방송 등 시청	문화 예술 관람 (연극, 영화, 연주회 등)	운동 경기 관람	창작 활동 (독서, 미술, 악기연주 등)	동네 산책	운동 (축구, 테니스, 조깅 등)	여행, 캠핑, 야외 나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학습 활동, 자기 계발	지역 사회 활동 (자원 봉사, 동아리 모임 등)	종교 활동	휴식, 낮잠	가사일 (청소, 빨래, 요리 등)
	%	%	%	%	%	%	%	%	%	%	%	%	%	%
성별	남자	43.6	7.7	3.1	2.7	3.5	4.6	0.8	6.2	1.5	0.4	0.4	2.7	0.0
	여자	38.2	8.3	1.7	4.1	3.3	1.7	2.9	8.3	1.2	0.0	0.0	5.0	1.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54.0	3.2	3.2	4.0	0.8	0.8	0.0	4.0	0.8	0.8	0.0	4.0	1.6
	방학권	52.3	11.7	0.9	0.9	0.9	3.6	3.6	6.3	2.7	0.0	0.0	2.7	0.0
	창동권	25.7	12.3	3.4	5.0	5.6	2.8	2.8	8.9	1.7	0.0	0.6	1.1	0.6
	도봉권	39.3	1.2	1.2	2.4	6.0	7.1	0.0	9.5	0.0	0.0	0.0	10.7	0.0
	20대	35.6	6.8	1.4	4.1	1.4	4.1	1.4	12.3	1.4	0.0	0.0	4.1	1.4
연령대	30대	32.7	11.2	4.1	5.1	1.0	4.1	0.0	10.2	4.1	0.0	0.0	2.0	1.0
	40대	39.3	10.7	1.2	4.8	2.4	2.4	0.0	10.7	1.2	0.0	0.0	2.4	0.0
	50대	42.6	5.6	2.8	2.8	2.8	1.9	2.8	3.7	0.0	0.0	0.0	6.5	0.9
	60대	49.6	6.6	2.2	1.5	7.3	3.6	3.6	2.9	0.7	0.7	0.7	3.6	0.0
생애 주기별	청년	32.5	10.2	2.9	5.8	1.5	3.9	0.5	11.2	2.4	0.0	0.0	2.4	1.0
	중장년	46.0	7.5	2.5	1.7	4.6	1.7	2.5	4.2	0.8	0.0	0.4	4.2	0.4
은둔 수준	노년	50.9	1.8	0.0	1.8	5.5	7.3	3.6	5.5	0.0	1.8	0.0	7.3	0.0
	일반군	37.1	8.0	1.7	3.8	1.3	5.1	1.3	8.0	0.8	0.4	0.4	4.2	1.3
	위험군	44.5	8.0	3.0	3.0	5.3	1.5	2.3	6.5	1.9	0.0	0.0	3.4	0.0
계		41.0	8.0	2.4	3.4	3.4	3.2	1.8	7.2	1.4	0.2	0.2	3.8	0.6

□ 반면, 여가시간에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여행, 캠핑, 야외 나들이가 4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이 개인적이고 정적인 활동이었던 것에 비해 희망하는 활동의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표 4-126] 여가시간에 희망하는 활동 : 1순위

(n=500)

구분	가족, 친구, 지인과 의 대화 또는 모임	TV 또는 인터넷 방송 등 시청	문화 예술 관람 (연극, 영화, 연주회 등)	운동 경기 관람	창작 활동 (독서, 미술, 악기연 주 등)	동네 산책	운동 (축구, 테니스, 조깅 등)	여행, 캠핑, 야외 나들이	스마 트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학습 활동, 자기 계발	지역 사회 활동 (자원 봉사, 동아리 모임 등)	종교 활동	휴식, 낮잠	가사일 (청소, 빨래, 요리 등)
	%	%	%	%	%	%	%	%	%	%	%	%	%	%
성별	남자	17.8	5.4	5.4	3.5	2.3	5.0	44.4	1.2	6.9	0.8	1.2	1.2	0.0
	여자	15.8	10.0	2.1	5.4	2.5	2.5	39.4	2.5	8.7	0.8	0.0	0.4	0.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8	22.2	6.3	1.6	0.0	3.2	46.8	0.8	7.9	0.8	0.0	0.8	0.8
	방학권	2.7	33.3	7.2	3.6	1.8	4.5	41.4	1.8	1.8	0.9	0.0	0.0	0.0
	창동권	11.7	7.8	10.1	6.7	4.5	5.0	26.3	3.4	14.5	1.1	0.6	1.7	0.6
	도봉권	6.0	6.0	4.8	1.2	2.4	1.2	69.0	0.0	1.2	0.0	2.4	0.0	0.0
연령대	20대	6.8	9.6	15.1	5.5	0.0	2.7	45.2	1.4	4.1	0.0	0.0	1.4	1.4
	30대	9.2	13.3	11.2	5.1	0.0	5.1	34.7	1.0	10.2	1.0	0.0	1.0	1.0
	40대	3.6	14.3	4.8	6.0	4.8	8.3	39.3	3.6	9.5	2.4	0.0	1.2	0.0
	50대	10.2	19.4	4.6	2.8	2.8	1.9	42.6	1.9	7.4	0.9	0.0	0.9	0.0
생애 주기별	60대	5.1	22.6	5.1	1.5	3.6	2.2	46.7	1.5	7.3	0.0	2.2	0.0	0.0
	청년	7.8	9.7	12.6	6.3	1.0	4.9	38.3	1.5	8.7	0.5	0.0	1.5	1.0
	중장년	5.9	23.8	3.3	2.5	4.2	2.9	41.8	2.5	7.9	1.3	0.4	0.4	0.0
	노년	9.1	12.7	7.3	0.0	0.0	3.6	56.4	0.0	3.6	0.0	3.6	0.0	0.0
은둔 수준	일반군	5.1	9.7	8.4	2.1	1.3	5.1	53.6	0.8	5.9	1.3	0.8	0.8	0.0
	위험군	8.7	23.2	6.8	5.3	3.4	2.7	31.6	2.7	9.5	0.4	0.4	0.8	0.8
	계	7.0	16.8	7.6	3.8	2.4	3.8	42.0	1.8	7.8	0.8	0.6	0.8	0.4

□ 여가 시간 활용(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비용 부담이 26.8%(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함께 할 사람의 부재가 15.6%(78명), 문화 및 여가 활동 정보 부족이 11.0%(55명)의 순으로 나타남.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자체에 대한 수요가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활동을 함께 할 사람의 부재는 여가 활동의 즐거움과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표 4-127] 여가 시간 활용(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

(n=500)

구분		건강상태		함께 할 사람 없음		마땅한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부재		문화 및 여가 활동 정보 부족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 부족		비용 부담		시간 부족		하기 싫음/귀찮음		어려움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2	8.5	41	15.8	27	10.4	28	10.8	14	5.4	60	23.2	39	15.1	12	4.6	16	6.2
	여자	18	7.5	37	15.4	17	7.1	27	11.2	15	6.2	74	30.7	24	10.0	15	6.2	14	5.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0	7.9	20	15.9	4	3.2	11	8.7	8	6.3	41	32.5	30	23.8	0	0.0	2	1.6
	방학권	14	12.6	30	27.0	11	9.9	9	8.1	5	4.5	15	13.5	2	1.8	4	3.6	21	18.9
	창동권	11	6.1	25	14.0	25	14.0	34	19.0	14	7.8	35	19.6	15	8.4	18	10.1	2	1.1
	도봉권	5	6.0	3	3.6	4	4.8	1	1.2	2	2.4	43	51.2	16	19.0	5	6.0	5	6.0
연령대	20대	6	8.2	13	17.8	2	2.7	5	6.8	5	6.8	21	28.8	11	15.1	8	11.0	2	2.7
	30대	5	5.1	15	15.3	13	13.3	12	12.2	6	6.1	26	26.5	11	11.2	7	7.1	3	3.1
	40대	3	3.6	14	16.7	8	9.5	11	13.1	6	7.1	25	29.8	10	11.9	4	4.8	3	3.6
	50대	5	4.6	14	13.0	13	12.0	14	13.0	6	5.6	29	26.9	15	13.9	3	2.8	9	8.3
	60대	21	15.3	22	16.1	8	5.8	13	9.5	6	4.4	33	24.1	16	11.7	5	3.6	13	9.5
생애 주기별	청년	11	5.3	32	15.5	18	8.7	25	12.1	13	6.3	60	29.1	24	11.7	17	8.3	6	2.9
	중장년	22	9.2	41	17.2	23	9.6	24	10.0	15	6.3	56	23.4	31	13.0	8	3.3	19	7.9
은둔 수준	노년	7	12.7	5	9.1	3	5.5	6	10.9	1	1.8	18	32.7	8	14.5	2	3.6	5	9.1
	일반군	10	4.2	24	10.1	18	7.6	18	7.6	11	4.6	68	28.7	55	23.2	10	4.2	23	9.7
	위험군	30	11.4	54	20.5	26	9.9	37	14.1	18	6.8	66	25.1	8	3.0	17	6.5	7	2.7
계		40	8.0	78	15.6	44	8.8	55	11.0	29	5.8	134	26.8	63	12.6	27	5.4	30	6.0

- 응답자들의 대부분(85.8%, 429명)은 디지털기기 혹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40대를 포함한 청년 세대의 경우 디지털기기 및 인터넷 사용은 92.2%에 이르며, 노년 세대와의 사용 비율(70.9%)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4-128] 디지털기기/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

(n=500)

구분		가능하고, 사용하고 있다		가능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방법을 모른다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26	87.3	26	10.0	7	2.7
	여자	203	84.2	33	13.7	5	2.1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18	93.7	6	4.8	2	1.6
	방학권	96	86.5	15	13.5	0	0.0
	창동권	146	81.6	27	15.1	6	3.4
	도봉권	69	82.1	11	13.1	4	4.8
연령대	20대	69	94.5	3	4.1	1	1.4
	30대	90	91.8	8	8.2	0	0.0
	40대	76	90.5	6	7.1	2	2.4
	50대	94	87.0	14	13.0	0	0.0
	60대	100	73.0	28	20.4	9	6.6
생애 주기별	청년	190	92.2	14	6.8	2	1.0
	중장년	200	83.7	35	14.6	4	1.7
	노년	39	70.9	10	18.2	6	10.9
은둔 수준	일반군	220	92.8	15	6.3	2	0.8
	위험군	209	79.5	44	16.7	10	3.8
계		429	85.8	59	11.8	12	2.4

- 응답자들이 디지털기기로 하는 주요 활동으로는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활동이 33.1%(14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보검색이 21.2%(91명),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시청이 17.9%(77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29] 디지털기기로 하는 주요 활동 : 1순위

(n=500)

구분		뉴스검색		정보검색		쇼핑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등)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게임		동영상 시청(유튜브, 넷플릭스 등)		웹툰, 웹소설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2	18.6	49	21.7	4	1.8	67	29.6	11	4.9	9	4.0	43	19.0	0	0.0	1	0.4
	여자	27	13.3	42	20.7	4	2.0	75	36.9	15	7.4	4	2.0	34	16.7	2	1.0	0	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4	11.9	37	31.4	2	1.7	49	41.5	8	6.8	1	0.8	7	5.9	0	0.0	0	0.0
	방학권	13	13.5	25	26.0	2	2.1	22	22.9	5	5.2	2	2.1	27	28.1	0	0.0	0	0.0
	창동권	24	16.4	20	13.7	3	2.1	56	38.4	9	6.2	5	3.4	27	18.5	1	0.7	1	0.7
	도봉권	18	26.1	9	13.0	1	1.4	15	21.7	4	5.8	5	7.2	16	23.2	1	1.4	0	0.0
	20대	6	8.7	16	23.2	1	1.4	29	42.0	4	5.8	1	1.4	11	15.9	1	1.4	0	0.0
연령대	30대	8	8.9	14	15.6	2	2.2	29	32.2	12	13.3	4	4.4	20	22.2	1	1.1	0	0.0
	40대	13	17.1	17	22.4	1	1.3	23	30.3	3	3.9	3	3.9	16	21.1	0	0.0	0	0.0
	50대	23	24.5	22	23.4	1	1.1	25	26.6	6	6.4	3	3.2	14	14.9	0	0.0	0	0.0
	60대	19	19.0	22	22.0	3	3.0	36	36.0	1	1.0	2	2.0	16	16.0	0	0.0	1	1.0
	청년	19	10.0	34	17.9	3	1.6	72	37.9	16	8.4	7	3.7	37	19.5	2	1.1	0	0.0
생애 주기별	증장년	42	21.0	49	24.5	3	1.5	57	28.5	10	5.0	5	2.5	33	16.5	0	0.0	1	0.5
	노년	8	20.5	8	20.5	2	5.1	13	33.3	0	0.0	1	2.6	7	17.9	0	0.0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33	15.0	37	16.8	1	0.5	86	39.1	13	5.9	7	3.2	41	18.6	1	0.5	1	0.5
	위험군	36	17.2	54	25.8	7	3.3	56	26.8	13	6.2	6	2.9	36	17.2	1	0.5	0	0.0
계		69	16.1	91	21.2	8	1.9	142	33.1	26	6.1	13	3.0	77	17.9	2	0.5	1	0.2

□ 응답자들의 하루 인터넷 사용량을 살펴보면,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의 응답이 35.0%(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인 25.9%(111명),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13.8%(59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30] 하루 인터넷 사용량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거의 하루 종일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2	9.7	68	30.1	87	38.5	33	14.6	10	4.4	2	0.9	4	1.8
	여자	30	14.8	43	21.2	63	31.0	26	12.8	9	4.4	16	7.9	16	7.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4	20.3	9	7.6	33	28.0	32	27.1	10	8.5	6	5.1	4	3.4
	방학권	24	25.0	36	37.5	26	27.1	4	4.2	1	1.0	4	4.2	1	1.0
	창동권	2	1.4	43	29.5	64	43.8	11	7.5	6	4.1	6	4.1	14	9.6
	도봉권	2	2.9	23	33.3	27	39.1	12	17.4	2	2.9	2	2.9	1	1.4
	20대	7	10.1	12	17.4	22	31.9	16	23.2	3	4.3	5	7.2	4	5.8
연령대	30대	8	8.9	14	15.6	33	36.7	10	11.1	5	5.6	10	11.1	10	11.1
	40대	4	5.3	19	25.0	28	36.8	15	19.7	5	6.6	1	1.3	4	5.3
	50대	15	16.0	30	31.9	35	37.2	10	10.6	3	3.2	0	0.0	1	1.1
	60대	18	18.0	36	36.0	32	32.0	8	8.0	3	3.0	2	2.0	1	1.0
	청년	15	7.9	32	16.8	67	35.3	32	16.8	12	6.3	15	7.9	17	8.9
생애 주기별	중장년	33	16.5	64	32.0	69	34.5	24	12.0	4	2.0	3	1.5	3	1.5
	노년	4	10.3	15	38.5	14	35.9	3	7.7	3	7.7	0	0.0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15	6.8	53	24.1	80	36.4	44	20.0	11	5.0	7	3.2	10	4.5
	위험군	37	17.7	58	27.8	70	33.5	15	7.2	8	3.8	11	5.3	10	4.8
계		52	12.1	111	25.9	150	35.0	59	13.8	19	4.4	18	4.2	20	4.7

□ 응답자들이 디지털기기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담스러운 요금 때문이라는 응답이 35.2%(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29.6%(21명)으로 많았음.

[표 4-131] 디지털기기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

(n=71)

구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디지털 기기가 없어서		사용방법을 몰라서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1	33.3	6	18.2	9	27.3	7	21.2
	여자	10	26.3	19	50.0	3	7.9	6	15.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0	0.0	4	50.0	1	12.5	3	37.5
	방학권	5	33.3	10	66.7	0	0.0	0	0.0
	창동권	10	30.3	10	30.3	7	21.2	6	18.2
	도봉권	6	40.0	1	6.7	4	26.7	4	26.7
연령대	20대	1	25.0	0	0.0	2	50.0	1	25.0
	30대	2	25.0	2	25.0	4	50.0	0	0.0
	40대	5	62.5	2	25.0	0	0.0	1	12.5
	50대	2	14.3	8	57.1	4	28.6	0	0.0
	60대	11	29.7	13	35.1	2	5.4	11	29.7
생애 주기별	청년	6	37.5	3	18.8	6	37.5	1	6.3
	중장년	10	25.6	19	48.7	4	10.3	6	15.4
	노년	5	31.3	3	18.8	2	12.5	6	37.5
은둔 수준	일반군	9	52.9	5	29.4	1	5.9	2	11.8
	위험군	12	22.2	20	37.0	11	20.4	11	20.4
계		21	29.6	25	35.2	12	16.9	13	18.3

□ 응답자의 대부분(74.4%, 372명)은 평일에 거의 외출을 하는 편으로 나타남. 다만,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경우는 외출 빈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남.

[표 4-132] 평소 외출 빈도

(n=500)

구분		평일은 매일 외출		일주일에 3~4일 외출		정기적 외출은 없으나, 자주 외출		정기적 외출은 없으며, 가끔 외출		꼭 필요할 때만 외출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04	78.8	12	4.6	11	4.2	9	3.5	21	8.1	2	0.8
	여자	168	69.7	24	10.0	10	4.1	18	7.5	19	7.9	2	0.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96	76.2	3	2.4	6	4.8	14	11.1	7	5.6	0	0.0
	방학권	94	84.7	3	2.7	3	2.7	4	3.6	6	5.4	1	0.9
	창동권	124	69.3	20	11.2	11	6.1	9	5.0	14	7.8	1	0.6
	도봉권	58	69.0	10	11.9	1	1.2	0	0.0	13	15.5	2	2.4
연령대	20대	62	84.9	5	6.8	4	5.5	1	1.4	1	1.4	0	0.0
	30대	79	80.6	4	4.1	4	4.1	7	7.1	4	4.1	0	0.0
	40대	69	82.1	5	6.0	4	4.8	3	3.6	2	2.4	1	1.2
	50대	86	79.6	7	6.5	2	1.9	6	5.6	7	6.5	0	0.0
	60대	76	55.5	15	10.9	7	5.1	10	7.3	26	19.0	3	2.2
생애 주기별	청년	166	80.6	12	5.8	11	5.3	10	4.9	6	2.9	1	0.5
	중장년	181	75.7	18	7.5	7	2.9	12	5.0	19	7.9	2	0.8
	노년	25	45.5	6	10.9	3	5.5	5	9.1	15	27.3	1	1.8
은둔 수준	일반군	212	89.5	5	2.1	7	3.0	7	3.0	6	2.5	0	0.0
	위험군	160	60.8	31	11.8	14	5.3	20	7.6	34	12.9	4	1.5
계		372	74.4	36	7.2	21	4.2	27	5.4	40	8.0	4	0.8

6. 정책 인식

가. 도봉구 1인가구의 정책 욕구 및 인식

- 도봉구민은 1인가구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의 창구로 도봉구 관련 소셜 서비스(21.8%)와 도봉구청 홈페이지(13.4%)를 우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별로는 청년은 카카오톡, SNS같은 소셜서비스 중심이며, 중장년 및 노년세대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33]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출처 : 1순위

(n=500)

구분	도봉구청 홈페이지	도봉 1인가구 모아특목	쌍글벙글 서울 (1인가구 포털)	도봉구청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도봉구 1인가구 지원센터	도봉구 동 주민센터	도봉구 복지기관	도봉구 종이 소식지	도봉구청 소식 문자, E 뉴스 레터	주위 사람들 소개	통장, 반장, 동위원 등의 추천	신문, 홍보자료 기사	지역방송 TV	인터넷 검색	기타
	%	%	%	%	%	%	%	%	%	%	%	%	%	%	%
성별	남자	16.2	17.8	1.2	9.3	8.1	11.6	10.0	6.6	3.1	3.5	0.4	2.3	5.4	0.0
	여자	10.4	26.1	6.6	7.5	10.8	6.6	2.9	6.2	3.3	5.8	0.0	2.5	3.7	0.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7	19.0	4.8	11.9	8.7	9.5	4.8	6.3	5.6	8.7	0.8	4.0	2.4	0.8
	방학권	9.0	12.6	1.8	2.7	10.8	14.4	8.1	14.4	3.6	6.3	0.0	0.0	5.4	0.0
	창동권	7.3	29.1	6.1	8.9	11.2	8.4	9.5	4.5	1.1	1.1	0.0	2.2	6.7	0.0
	도봉권	39.3	22.6	0.0	9.5	4.8	3.6	1.2	0.0	3.6	3.6	0.0	3.6	2.4	0.0
연령대	20대	9.6	16.4	2.7	16.4	16.4	5.5	6.8	2.7	6.8	0.0	0.0	0.0	8.2	1.4
	30대	14.3	33.7	4.1	7.1	9.2	6.1	4.1	6.1	4.1	1.0	0.0	0.0	7.1	0.0
	40대	16.7	22.6	2.4	7.1	6.0	7.1	13.1	8.3	3.6	4.8	0.0	1.2	3.6	0.0
	50대	13.9	26.9	.9	6.5	9.3	9.3	1.9	9.3	1.9	2.8	0.0	4.6	5.6	0.0
	60대	12.4	11.7	7.3	7.3	8.0	14.6	8.0	5.1	1.5	10.9	0.7	4.4	0.7	0.0
생애 주기별	청년	11.2	26.7	3.4	10.2	11.2	5.8	6.8	5.3	5.8	1.0	0.0	0.5	7.3	0.5
	중장년	13.8	20.5	4.2	7.1	8.8	11.3	5.0	7.1	1.7	6.7	0.0	2.9	3.3	0.0
	노년	20.0	9.1	3.6	7.3	5.5	12.7	12.7	7.3	0.0	9.1	1.8	7.3	0.0	0.0
은둔 수준	일반군	12.7	17.7	2.5	8.0	8.0	11.4	6.3	8.0	4.2	6.8	0.0	4.6	3.8	0.4
	위험군	14.1	25.5	4.9	8.7	10.6	7.2	6.8	4.9	2.3	2.7	0.4	0.4	5.3	0.0
계		13.4	21.8	3.8	8.4	9.4	9.2	6.6	6.4	3.2	4.6	0.2	2.4	4.6	0.2

□ 1인가구를 위한 우선적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24.6%), 주거안전(19.6%), 건강 관리 지원(16.6%)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특징적으로, 거주지역별로는 쌍문권의 고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고, 생애주기적으로는 청년 세대의 경우 고용과 주거안전에 대한 정책 욕구가 크고, 중년 세대는 고용과 건강지원, 노년 세대는 주거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책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34]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도봉구의 지원 정책 : 1순위

(n=500)

구분	고용 지원 (일자리, 취업·창업지원 등)	건강 관리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주거 안전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 (공간, 소모임 등)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정보공유 강화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	치안, 등범죄 안전 강화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1인가구 인식 개선	급급 상황 대응 정책
	%	%	%	%	%	%	%	%	%	%	%	%
성별	남자	28.2	17.0	17.0	18.1	5.8	3.5	2.3	3.1	1.9	1.5	0.8
	여자	20.7	16.2	14.5	21.2	5.8	7.1	2.9	3.7	5.0	0.8	1.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2.1	18.3	11.1	10.3	9.5	1.6	1.6	.8	1.6	0.0	2.4
	방학권	16.2	11.7	24.3	26.1	10.8	1.8	.9	4.5	1.8	0.9	0.9
	창동권	20.1	11.2	19.0	21.8	2.8	9.5	3.9	3.9	4.5	2.2	1.1
	도봉권	19.0	32.1	4.8	20.2	0.0	6.0	3.6	4.8	6.0	1.2	0.0
	20대	31.5	12.3	19.2	17.8	4.1	4.1	1.4	2.7	5.5	1.4	0.0
연령대	30대	22.4	11.2	20.4	27.6	4.1	4.1	5.1	1.0	2.0	0.0	1.0
	40대	27.4	17.9	17.9	15.5	9.5	1.2	2.4	3.6	3.6	0.0	0.0
	50대	29.6	15.7	7.4	17.6	6.5	9.3	1.9	4.6	3.7	0.9	2.8
	60대	16.8	22.6	16.1	19.0	5.1	5.8	2.2	4.4	2.9	2.9	1.5
	청년	25.2	11.7	19.4	23.3	5.3	3.9	3.4	1.9	4.4	0.5	0.5
생애 주기별	중장년	26.8	18.4	13.0	14.6	6.7	6.7	2.1	4.2	3.3	1.7	1.7
	노년	12.7	27.3	14.5	27.3	3.6	3.6	1.8	5.5	0.0	1.8	1.8
은둔 수준	일반군	30.4	11.8	16.5	17.7	7.6	3.8	3.0	2.1	4.6	0.8	0.8
	위험군	19.4	20.9	15.2	21.3	4.2	6.5	2.3	4.6	2.3	1.5	1.5
계		24.6	16.6	15.8	19.6	5.8	5.2	2.6	3.4	3.4	1.2	1.2

□ 1인가구를 위한 경제 분야(고용)지원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23.4%(117명)는 구직 기간 활동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다음으로 20.2%(101명)는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제공, 16.6%(83명)는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응답 순으로 나타남. 특히, 경제 지원 정책에 대한 연령별 욕구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20-30대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이, 40대는 직업 훈련 교육 제공이, 50-60대는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135]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경제 분야 지원 정책 : 1순위

(n=500)

구분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구직활동 기간 중 생계비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제공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격증 취득, 교육 비용 지원		지자체 일자리 창출		각종 세제에서 1인가구에 대한 불이익 개선		재무상담 및 컨설팅		노후 준비교육 및 상담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5	21.2	55	21.2	52	20.1	26	10.0	20	7.7	18	6.9	15	5.8	7	2.7	11	4.2
	여자	46	19.1	62	25.7	31	12.9	16	6.6	35	14.5	7	2.9	26	10.8	3	1.2	15	6.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9	38.9	28	22.2	18	14.3	5	4.0	6	4.8	1	0.8	13	10.3	1	0.8	5	4.0
	방학권	16	14.4	19	17.1	30	27.0	8	7.2	22	19.8	8	7.2	6	5.4	0	0.0	2	1.8
	창동권	29	16.2	38	21.2	32	17.9	22	12.3	15	8.4	11	6.1	16	8.9	4	2.2	12	6.7
	도봉권	7	8.3	32	38.1	3	3.6	7	8.3	12	14.3	5	6.0	6	7.1	5	6.0	7	8.3
연령대	20대	22	30.1	15	20.5	15	20.5	3	4.1	9	12.3	0	0.0	6	8.2	1	1.4	2	2.7
	30대	20	20.4	20	20.4	17	17.3	9	9.2	12	12.2	3	3.1	9	9.2	2	2.0	6	6.1
	40대	14	16.7	15	17.9	22	26.2	9	10.7	9	10.7	6	7.1	8	9.5	1	1.2	0	0.0
	50대	23	21.3	31	28.7	17	15.7	10	9.3	8	7.4	7	6.5	5	4.6	2	1.9	5	4.6
	60대	22	16.1	36	26.3	12	8.8	11	8.0	17	12.4	9	6.6	13	9.5	4	2.9	13	9.5
	청년	47	22.8	41	19.9	40	19.4	19	9.2	25	12.1	5	2.4	18	8.7	3	1.5	8	3.9
생애 주기별	중장년	40	16.7	66	27.6	40	16.7	17	7.1	28	11.7	17	7.1	18	7.5	5	2.1	8	3.3
	노년	14	25.5	10	18.2	3	5.5	6	10.9	2	3.6	3	5.5	5	9.1	2	3.6	10	18.2
은둔 수준	일반군	68	28.7	50	21.1	34	14.3	16	6.8	29	12.2	10	4.2	16	6.8	7	3.0	7	3.0
	위험군	33	12.5	67	25.5	49	18.6	26	9.9	26	9.9	15	5.7	25	9.5	3	1.1	19	7.2
계		101	20.2	117	23.4	83	16.6	42	8.4	55	11.0	25	5.0	41	8.2	10	2.0	26	5.2

□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거주와 관련한 자금 대출 지원이 43.0%(2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가 28.4%(142명), 1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택 공급이 15.0%(75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36]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 : 1순위

(n=500)

구분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지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1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택 공급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복합서비스 시설 마련		여성 전용 원룸시설 정보 제공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14	44.0	70	27.0	45	17.4	28	10.8	2	0.8	0	0.0
	여자	101	41.9	72	29.9	30	12.4	33	13.7	4	1.7	1	0.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73	57.9	29	23.0	13	10.3	11	8.7	0	0.0	0	0.0
	방학권	29	26.1	35	31.5	28	25.2	19	17.1	0	0.0	0	0.0
	창동권	63	35.2	62	34.6	29	16.2	21	11.7	3	1.7	1	0.6
	도봉권	50	59.5	16	19.0	5	6.0	10	11.9	3	3.6	0	0.0
연령대	20대	31	42.5	21	28.8	12	16.4	7	9.6	2	2.7	0	0.0
	30대	48	49.0	26	26.5	14	14.3	8	8.2	1	1.0	1	1.0
	40대	39	46.4	20	23.8	11	13.1	13	15.5	1	1.2	0	0.0
	50대	46	42.6	31	28.7	16	14.8	13	12.0	2	1.9	0	0.0
생애 주기별	60대	51	37.2	44	32.1	22	16.1	20	14.6	0	0.0	0	0.0
	청년	92	44.7	57	27.7	32	15.5	21	10.2	3	1.5	1	0.5
	중장년	100	41.8	70	29.3	35	14.6	31	13.0	3	1.3	0	0.0
	노년	23	41.8	15	27.3	8	14.5	9	16.4	0	0.0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128	54.0	48	20.3	34	14.3	22	9.3	4	1.7	1	0.4
	위험군	87	33.1	94	35.7	41	15.6	39	14.8	2	0.8	0	0.0
계		215	43.0	142	28.4	75	15.0	61	12.2	6	1.2	1	0.2

□ 또한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우선적 정책에 대해서는 가로등, CCTV 증설과 같은 주택 주변 환경 개선(36.6%, 183명)과 주택 출입구 및 현관 도
어락, 방범창 설치 등 주택 내부 환경 개선(29.6%, 148명)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표 4-137]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안전 정책 : 1순위

(n=500)

구분	주택 내부환경 개선		주택 주변환경 개선		위급상황 시 사회적 보호장치 제공		안심도우미 서비스 제공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태배함 설치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		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 프로그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77	29.7	93	35.9	31	12.0	28	10.8	10	3.9	16	6.2	4	1.5
	여자	71	29.5	90	37.3	28	11.6	33	13.7	8	3.3	7	2.9	4	1.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58	46.0	37	29.4	8	6.3	11	8.7	3	2.4	7	5.6	2	1.6
	방학권	17	15.3	41	36.9	27	24.3	16	14.4	8	7.2	2	1.8	0	0.0
	창동권	55	30.7	72	40.2	15	8.4	22	12.3	6	3.4	8	4.5	1	0.6
	도봉권	18	21.4	33	39.3	9	10.7	12	14.3	1	1.2	6	7.1	5	6.0
연령대	20대	34	46.6	22	30.1	2	2.7	10	13.7	3	4.1	1	1.4	1	1.4
	30대	28	28.6	44	44.9	9	9.2	9	9.2	3	3.1	5	5.1	0	0.0
	40대	26	31.0	31	36.9	13	15.5	9	10.7	4	4.8	0	0.0	1	1.2
	50대	30	27.8	33	30.6	17	15.7	16	14.8	3	2.8	5	4.6	4	3.7
생애 주기별	60대	30	21.9	53	38.7	18	13.1	17	12.4	5	3.6	12	8.8	2	1.5
	청년	73	35.4	84	40.8	13	6.3	21	10.2	8	3.9	6	2.9	1	0.5
	중장년	64	26.8	78	32.6	40	16.7	32	13.4	9	3.8	10	4.2	6	2.5
은둔 수준	노년	11	20.0	21	38.2	6	10.9	8	14.5	1	1.8	7	12.7	1	1.8
	일반군	90	38.0	77	32.5	27	11.4	29	12.2	6	2.5	6	2.5	2	0.8
	위험군	58	22.1	106	40.3	32	12.2	32	12.2	12	4.6	17	6.5	6	2.3
계		148	29.6	183	36.6	59	11.8	61	12.2	18	3.6	23	4.6	8	1.6

□ 1인가구 건강을 위한 우선적 정책에 대해서는 신체적 건강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응답이 31.0%(15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14.4%(72명), 우울증 검진서비스 등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마련이 14.2%(7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적으로 노년세대의 경우, 우울증 검진 등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타 세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8]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건강지원 정책 : 1순위

구분		운동 등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우울증 검진서비스 등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의사소통방법, 대인관계기술 등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서비스		건강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생활체육 등 지역사회 내 운동 공간 및 시설 제공		규칙적인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요리 프로그램		건강검진, 체중관리, 금연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연령별 변화 및 관련 질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성별	구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		%		%		%		%		%		%		%
거주지 권역별	남자	81	31.3	33	12.7	28	10.8	38	14.7	30	11.6	20	7.7	18	6.9	7	2.7	4	1.5
	여자	74	30.7	38	15.8	21	8.7	34	14.1	33	13.7	10	4.1	17	7.1	10	4.1	4	1.7
	쌍문권	55	43.7	18	14.3	9	7.1	19	15.1	10	7.9	6	4.8	4	3.2	4	3.2	1	0.8
	방학권	30	27.0	4	3.6	15	13.5	23	20.7	21	18.9	8	7.2	10	9.0	0	0.0	0	0.0
	창동권	56	31.3	16	8.9	23	12.8	19	10.6	25	14.0	14	7.8	11	6.1	12	6.7	3	1.7
연령대	도봉권	14	16.7	33	39.3	2	2.4	11	13.1	7	8.3	2	2.4	10	11.9	1	1.2	4	4.8
	20대	28	38.4	12	16.4	9	12.3	7	9.6	11	15.1	3	4.1	1	1.4	2	2.7	0	0.0
	30대	33	33.7	12	12.2	12	12.2	11	11.2	14	14.3	10	10.2	5	5.1	0	0.0	1	1.0
	40대	27	32.1	11	13.1	7	8.3	11	13.1	13	15.5	2	2.4	8	9.5	4	4.8	1	1.2
	50대	26	24.1	13	12.0	12	11.1	23	21.3	12	11.1	7	6.5	10	9.3	2	1.9	3	2.8
생애 주기별	60대	41	29.9	23	16.8	9	6.6	20	14.6	13	9.5	8	5.8	11	8.0	9	6.6	3	2.2
	청년	70	34.0	29	14.1	23	11.2	24	11.7	30	14.6	15	7.3	9	4.4	4	1.9	2	1.0
	중장년	67	28.0	28	11.7	22	9.2	40	16.7	32	13.4	14	5.9	20	8.4	12	5.0	4	1.7
	노년	18	32.7	14	25.5	4	7.3	8	14.5	1	1.8	1	1.8	6	10.9	1	1.8	2	3.6
	은둔 수준	90	38.0	29	12.2	19	8.0	26	11.0	33	13.9	10	4.2	21	8.9	4	1.7	5	2.1
수준	일반군	65	24.7	42	16.0	30	11.4	46	17.5	30	11.4	20	7.6	14	5.3	13	4.9	3	1.1
	위험군	155	31.0	71	14.2	49	9.8	72	14.4	63	12.6	30	6.0	35	7.0	17	3.4	8	1.6
계																			

-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에 대해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응답이 21.2%(106명)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확충이 20.8%(104명), 1인가구 친목 모임 지원이 18.0%(90명)의 순으로 나타나, 1인가구를 위한 정서적 친밀감과 정보 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해주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기회를 창출해주는 공적 지지체계의 필요성을 예측할 수 있음.

[표 4-139]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정책 : 1순위

(n=500)

구분	1인가구 친목 모임 지원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 에 관한 정보 제공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확충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품앗이 및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일상생활기술 및 독립생활교육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정보공유		자원봉사활동		명절, 생일 기념 행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8	18.5	59	22.8	53	20.5	32	12.4	16	6.2	20	7.7	21	8.1	2	0.8	8	3.1
	여자	42	17.4	47	19.5	51	21.2	25	10.4	16	6.6	34	14.1	17	7.1	3	1.2	6	2.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5	27.8	34	27.0	28	22.2	5	4.0	5	4.0	9	7.1	7	5.6	0	0.0	3	2.4
	방학권	13	11.7	23	20.7	30	27.0	13	11.7	15	13.5	9	8.1	7	6.3	0	0.0	1	0.9
	창동권	40	22.3	28	15.6	32	17.9	32	17.9	5	2.8	28	15.6	10	5.6	1	0.6	3	1.7
	도봉권	2	2.4	21	25.0	14	16.7	7	8.3	7	8.3	8	9.5	14	16.7	4	4.8	7	8.3
연령대	20대	21	28.8	18	24.7	17	23.3	6	8.2	3	4.1	1	1.4	5	6.8	0	0.0	2	2.7
	30대	17	17.3	21	21.4	22	22.4	10	10.2	7	7.1	12	12.2	8	8.2	0	0.0	1	1.0
	40대	12	14.3	21	25.0	18	21.4	10	11.9	4	4.8	14	16.7	3	3.6	1	1.2	1	1.2
	50대	21	19.4	25	23.1	16	14.8	15	13.9	5	4.6	14	13.0	8	7.4	1	0.9	3	2.8
생애 주기별	60대	19	13.9	21	15.3	31	22.6	16	11.7	13	9.5	13	9.5	14	10.2	3	2.2	7	5.1
	청년	44	21.4	49	23.8	45	21.8	20	9.7	10	4.9	21	10.2	14	6.8	0	0.0	3	1.5
	중장년	40	16.7	47	19.7	47	19.7	33	13.8	16	6.7	29	12.1	17	7.1	4	1.7	6	2.5
	노년	6	10.9	10	18.2	12	21.8	4	7.3	6	10.9	4	7.3	7	12.7	1	1.8	5	9.1
은둔 수준	일반군	52	21.9	49	20.7	51	21.5	18	7.6	19	8.0	17	7.2	25	10.5	2	0.8	4	1.7
	위험군	38	14.4	57	21.7	53	20.2	39	14.8	13	4.9	37	14.1	13	4.9	3	1.1	10	3.8
	계	90	18.0	106	21.2	104	20.8	57	11.4	32	6.4	54	10.8	38	7.6	5	1.0	14	2.8

7. 도봉구 내 취약계층 1인가구의 정책 욕구

가. 도봉구 내 1인 청년 가구의 삶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

- 도봉구는 1인가구의 고립 및 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도봉구 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1인가구의 사회적 혹은 공공 네트워크 구축 및 도봉형 위기 대응 지원 체계 마련, 심리·사회적 건강 및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자 함.
- 특히,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1인가구 지원 사업 내에서도 청년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도봉구 내 고립 청년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표명함. 도봉구는 청년을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에 놓인 1인가구 청년들은 타 계층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더욱 다양하고 대처 및 개입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도봉구 1인가구 내에서도 고립 및 은둔 위험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한 가구 실태를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함.

1) 일반 특성

- 도봉구 거주 응답자의 절반 이상(52.6%)은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으로 나타남. 그 중 청년세대는 104명으로 전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39.5%를 차지함.

[표 4-140]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정도 : 연령별

(n=263)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대	청년	104	39.5
	중장년	130	49.4
	노년	29	11.0
계		263	100.0

- 응답자들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의 경우, 남성이 51.0%(53명)으로 여성(49.0%, 51명)과 비슷한 비율을 보임.

□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일반 가구 청년들이 쌍문권과 창동권에 분포 비율이 높은 반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의 경우 창동권(55.8%)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가구 청년의 경우 30대의 비율이 48.1%(50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30.8%, 32명), 40대(21.2%, 22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41] 응답자 일반 현황

구분		위험군(n=104)		일반군(n=10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53	51.0	53	52.0
	여자	51	49.0	49	48.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9	18.3	38	37.3
	방학권	20	19.2	16	15.7
	창동권	58	55.8	32	31.4
	도봉권	7	6.7	16	15.7
연령대	20대	32	30.8	41	40.2
	30대	50	48.1	48	47.1
	40대	22	21.2	13	12.7
계		104	100.0	102	100.0

2) 건강 및 긴급 돌봄

□ 도봉구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경우, 일반 가구 청년과 비교하여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비교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76.9%(8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일반 가구 청년과 비교하였을 때 나쁘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음.

[표 4-142] 신체적 건강상태

구분		위험군(n=104)					일반군(n=102)				
		나쁜 편		좋은 편		평균	나쁜 편		좋은 편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	9.4	48	90.6	2.94	4	7.5	49	92.5	2.98
	여자	19	37.3	32	62.7	2.59	5	10.2	44	89.8	2.9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	15.8	16	84.2	2.79	4	10.5	34	89.5	2.89
	방학권	3	15.0	17	85.0	2.90	1	6.3	15	93.8	3.06
	창동권	16	27.6	42	72.4	2.72	4	12.5	28	87.5	2.94
	도봉권	2	28.6	5	71.4	2.71	0	0.0	16	100.0	3.00
연령대	20대	4	12.5	28	87.5	2.88	4	9.8	37	90.2	2.95
	30대	16	32.0	34	68.0	2.68	1	2.1	47	97.9	3.00
	40대	4	18.2	18	81.8	2.82	4	30.8	9	69.2	2.77
계		24	23.1	80	76.9	2.77	9	8.8	93	91.2	2.95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서도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은 일반 가구 청년에 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43] 정신건강과 관련한 어려움

(n=104)

구분		우울감	음주	불안감	스트레스	자살생각
성별	남자	1.87	1.91	1.85	2.26	1.66
	여자	2.35	1.90	2.57	2.88	2.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16	1.53	2.21	2.42	1.84
	방학권	1.70	1.35	1.75	2.00	1.30
	창동권	2.26	2.16	2.33	2.76	2.03
	도봉권	1.86	2.43	2.43	3.00	1.57
연령대	20대	2.00	1.88	2.06	2.38	1.75
	30대	2.20	1.76	2.28	2.70	1.78
	40대	2.05	2.27	2.23	2.55	2.05
계		2.11	1.90	2.20	2.57	1.83

- 도봉구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70.2%(73명)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우울감 경험 역시 일반 가구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적으로는 창동권이 79.3%로 가장 많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우울감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4]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 우울감

구분		위험군(n=104)					일반군(n=102)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평균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	34.0	35	66.0	1.87	22	41.5	31	58.5	1.62
	여자	13	25.5	38	74.5	2.35	17	34.7	32	65.3	1.8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	42.1	11	57.9	2.16	12	31.6	26	68.4	1.76
	방학권	9	45.0	11	55.0	1.70	11	68.8	5	31.3	1.38
	창동권	12	20.7	46	79.3	2.26	12	37.5	20	62.5	1.81
	도봉권	2	28.6	5	71.4	1.86	4	25.0	12	75.0	1.88
연령대	20대	13	40.6	19	59.4	2.00	17	41.5	24	58.5	1.59
	30대	12	24.0	38	76.0	2.20	17	35.4	31	64.6	1.83
	40대	6	27.3	16	72.7	2.05	5	38.5	8	61.5	1.85
계		31	29.8	73	70.2	2.11	39	38.2	63	61.8	1.74

- 불안감의 경우,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69.2%(72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 청년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특징적으로 연령별로 보았을 때 40대의 불안 경험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표 4-145]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 불안감

구분		위험군(n=104)					일반군(n=102)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평균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1	39.6	32	60.4	1.85	23	43.4	30	56.6	1.72
	여자	11	21.6	40	78.4	2.57	10	20.4	39	79.6	1.9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	42.1	11	57.9	2.21	7	18.4	31	81.6	1.97
	방학권	9	45.0	11	55.0	1.75	11	68.8	5	31.3	1.31
	창동권	14	24.1	44	75.9	2.33	10	31.3	22	68.8	1.91
	도봉권	1	14.3	6	85.7	2.43	5	31.3	11	68.8	1.94
연령대	20대	14	43.8	18	56.3	2.06	15	36.6	26	63.4	1.66
	30대	14	28.0	36	72.0	2.28	16	33.3	32	66.7	1.92
	40대	4	18.2	18	81.8	2.23	2	15.4	11	84.6	2.15
계		32	30.8	72	69.2	2.20	33	32.4	69	67.6	1.84

- 도봉구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51.0%(73명)은 한 번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응답은 일반 청년 가구보다 약 20%p 차이가 나는 수치임. 특히, 40대의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4-146]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 자살생각

구분		위험군(n=104)					일반군(n=102)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평균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7	50.9	26	49.1	1.66	41	77.4	12	22.6	1.26
	여자	24	47.1	27	52.9	2.00	29	59.2	20	40.8	1.4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9	47.4	10	52.6	1.84	25	65.8	13	34.2	1.34
	방학권	14	70.0	6	30.0	1.30	14	87.5	2	12.5	1.19
	창동권	24	41.4	34	58.6	2.03	20	62.5	12	37.5	1.47
	도봉권	4	57.1	3	42.9	1.57	11	68.8	5	31.3	1.31
연령대	20대	20	62.5	12	37.5	1.75	29	70.7	12	29.3	1.29
	30대	26	52.0	24	48.0	1.78	33	68.8	15	31.3	1.38
	40대	5	22.7	17	77.3	2.05	8	61.5	5	38.5	1.46
계		51	49.0	53	51.0	1.83	70	68.6	32	31.4	1.35

3) 고용 및 가구 경제

-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가구 청년의 대부분(91.3%, 95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86.5%(77명)는 상용직(정규직)으로 근로하고 있었음.

[표 4-147] 경제활동 : 직업 및 고용형태*

구분		없음(무직)		있음		상용직(정규직)		임시직(비정규직)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	3.8	102	96.2	42	87.5	51	12.5
	여자	7	13.7	97	86.3	35	85.4	58	14.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	10.5	102	89.5	15	93.8	78	6.2
	방학권	3	15.0	101	85.0	13	81.3	80	18.7
	창동권	4	6.9	100	93.1	43	84.3	50	15.7
	도봉권	0	0.0	104	100.0	6	100.0	87	0
연령대	20대	0	0.0	104	100.0	27	93.1	66	6.9
	30대	8	16.0	96	84.0	34	85.0	59	15
	40대	1	4.5	103	95.5	16	80.0	77	20
계		9	8.7	95	91.3	77	86.5	16	13.5

*고용형태: 학생, 구직중, 무직, 전업주부, 기타 응답 제외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이 생활비를 본인이 해결(본인의 수입, 본인이 모아둔 돈)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었으나, 일반 가구 청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148] 생활비 마련 방법 : 본인 해결 비중

구분		위험군(n=104)		일반군(n=10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44	83.0	48	90.6
	여자	47	92.2	49	10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7	89.5	36	94.7
	방학권	17	85.0	16	100.0
	창동권	52	89.7	30	93.8
	도봉권	5	71.4	15	93.8
연령대	20대	28	87.5	39	95.1
	30대	43	86.0	46	95.8
	40대	20	90.9	12	92.3
계		91	87.5	97	95.1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76.0%(79명)은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쌍문권,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저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일반 청년 가구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149] 저축 여부

구분		위험군(n=104)				일반군(n=102)			
		저축 안(못)함		저축함		저축 안(못)함		저축함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0	18.9	43	81.1	10	18.9	43	81.1
	여자	15	29.4	36	70.6	5	10.2	44	89.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	5.3	18	94.7	5	13.2	33	86.8
	방학권	2	10.0	18	90.0	0	0.0	16	100.0
	창동권	18	31.0	40	69.0	5	15.6	27	84.4
	도봉권	4	57.1	3	42.9	5	31.3	11	68.8
연령대	20대	7	21.9	25	78.1	4	9.8	37	90.2
	30대	13	26.0	37	74.0	9	18.8	39	81.3
	40대	5	22.7	17	77.3	2	15.4	11	84.6
계		25	24.0	79	76.0	15	14.7	87	85.3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75%(78명)는 본인의 생활수준을 하층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일반 청년 가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임. 일반 가구 청년의 경우 절반 이상(57.8%)이 그들 자신을 중간층 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50] 전반적 생활수준 인식*

구분		위험군(n=104)				일반군(n=102)			
		하층		중간층		하층		중간층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1	77.4	12	22.6	24	45.3	29	54.7
	여자	37	72.5	14	27.5	19	38.8	30	61.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6	84.2	3	15.8	14	36.8	24	63.2
	방학권	14	70.0	6	30.0	5	31.3	11	68.8
	창동권	43	74.1	15	25.9	17	53.1	15	46.9
	도봉권	5	71.4	2	28.6	7	43.8	9	56.3
연령대	20대	27	84.4	5	15.6	15	36.6	26	63.4
	30대	33	66.0	17	34.0	24	50.0	24	50.0
	40대	18	81.8	4	18.2	4	30.8	9	69.2
계		78	75.0	26	25.0	43	42.2	59	57.8

*상층, 최상층에 대한 응답 없음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들은 향후 미래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절반 이상(57.7%, 60명)이 준비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이는 67.6%(69명)가 미래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반 가구 청년 응답과 대비되는 수치임.

[표 4-151] 미래 노후 준비 : 경제적 준비

구분		위험군(n=104)				일반군(n=102)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한다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한다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5	66.0	18	34.0	23	43.4	30	56.6
	여자	25	49.0	26	51.0	10	20.4	39	79.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0	52.6	9	47.4	10	26.3	28	73.7
	방학권	14	70.0	6	30.0	2	12.5	14	87.5
	창동권	32	55.2	26	44.8	16	50.0	16	50.0
	도봉권	4	57.1	3	42.9	5	31.3	11	68.8
연령대	20대	25	78.1	7	21.9	14	34.1	27	65.9
	30대	29	58.0	21	42.0	16	33.3	32	66.7
	40대	6	27.3	16	72.7	3	23.1	10	76.9
계		60	57.7	44	42.3	33	32.4	69	67.6

□ 향후 고용유지를 위한 자기계발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들은 56.7%(59명)이 준비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이는 70.6%(72명)가 향후 고용유지를 위한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는 일반 가구 청년의 응답과는 반대되는 결과임.

[표 4-152] 미래 노후 준비 : 고용유지를 위한 자기계발

구분		위험군(n=104)				일반군(n=102)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한다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한다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5	47.2	28	52.8	16	30.2	37	69.8
	여자	34	66.7	17	33.3	14	28.6	35	71.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0	52.6	9	47.4	16	42.1	22	57.9
	방학권	10	50.0	10	50.0	1	6.3	15	93.8
	창동권	36	62.1	22	37.9	10	31.3	22	68.8
	도봉권	3	42.9	4	57.1	3	18.8	13	81.3
연령대	20대	16	50.0	16	50.0	12	29.3	29	70.7
	30대	33	66.0	17	34.0	15	31.3	33	68.8
	40대	10	45.5	12	54.5	3	23.1	10	76.9
계		59	56.7	45	43.3	30	29.4	72	70.6

4) 주거 및 안전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 가구의 경우 주거 및 주변환경 안전 측면에서 일부 상대적 취약성이 발견됨. 일반 청년 가구에 비해 주택보안, 사생활 침해, 긴급 상황 시 대처, 범죄로부터의 안전, 주변의 CCTV 및 가로등 등의 시설 안전에 대한 환경적 불안 인식이 높았고, 주택 및 주변 지역의 위생 및 청결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53]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 정도

(n=104)

구분		주택 보안	사생활 침해	화재 안전	주택 위생	도움 요청	범죄 안전	시설 안전	청결성
성별	남자	2.89	2.75	2.81	2.70	2.68	2.77	2.81	2.72
	여자	2.51	2.33	2.39	2.33	2.29	2.16	2.37	2.61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74	2.42	2.58	2.26	2.42	2.21	2.42	2.63
	방학권	2.70	2.65	2.80	2.80	2.60	2.65	2.85	2.70
	창동권	2.69	2.55	2.57	2.50	2.47	2.52	2.55	2.64
	도봉권	2.71	2.57	2.43	2.57	2.57	2.29	2.71	2.86
연령대	20대	2.72	2.56	2.66	2.53	2.56	2.34	2.63	2.75
	30대	2.64	2.48	2.54	2.46	2.46	2.42	2.60	2.56
	40대	2.82	2.68	2.68	2.64	2.45	2.77	2.55	2.77
계	위험군	2.70	2.55	2.61	2.52	2.49	2.47	2.60	2.66
	일반군	2.82	2.58	2.53	2.80	2.76	2.55	2.89	2.92

-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적 자원(가족, 친지, 친구 등)을 활용한다는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지만, 일반 청년(60.8%)과 비교하여 차이가 큼. 다만,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관련 서비스 활용 등의 공적 교류가 일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54] 위급 상황 시 대비책

(n=104)

구분		주위 사람과 지속적 연락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탁		1인가구 안심돌봄 서비스 이용		안전장치 설치		준비한 것이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	34.0	13	24.5	12	22.6	2	3.8	8	15.1
	여자	24	47.1	9	17.6	3	5.9	2	3.9	13	25.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1	57.9	5	26.3	1	5.3	0	0.0	2	10.5
	방학권	15	75.0	2	10.0	0	0.0	0	0.0	3	15.0
	창동권	11	19.0	15	25.9	14	24.1	4	6.9	14	24.1
	도봉권	5	71.4	0	0.0	0	0.0	0	0.0	2	28.6
연령대	20대	16	50.0	7	21.9	4	12.5	1	3.1	4	12.5
	30대	21	42.0	10	20.0	5	10.0	2	4.0	12	24.0
	40대	5	22.7	5	22.7	6	27.3	1	4.5	5	22.7
계	위험군	42	40.4	22	21.2	15	14.4	4	3.8	21	20.2
	일반군	62	60.8	12	11.8	6	5.9	1	1.0	21	20.6

5) 문화·여가 및 사회관계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반 가구 청년과 마찬가지로 사적 자원(가족, 친척, 친구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음. 다만,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일반 가구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지지체계 자원 확대 지원 요구가 예측됨(<표 4-155> ~ <표 4-161> 참조).

[표 4-155]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나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사람

(n=104)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위험군		일반군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2	22.6	29	54.7	5	9.4	3	5.7	3	5.7	0	0.0	0	0.0	1	1.9	-	-
	여자	17	33.3	23	45.1	1	2.0	0	0.0	0	0.0	2	3.9	1	2.0	7	13.7	-	-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	15.8	6	31.6	1	5.3	2	10.5	3	15.8	1	5.3	0	0.0	3	15.8	-	-
	방학권	3	15.0	14	70.0	1	5.0	1	5.0	0	0.0	0	0.0	0	0.0	1	5.0	-	-
	창동권	20	34.5	28	48.3	4	6.9	0	0.0	0	0.0	1	1.7	1	1.7	4	6.9	-	-
	도봉권	3	42.9	4	57.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	-
	20대	12	37.5	14	43.8	1	3.1	2	6.3	2	6.3	0	0.0	0	0.0	1	3.1	-	-
연령대	30대	12	24.0	26	52.0	3	6.0	1	2.0	1	2.0	1	2.0	1	2.0	5	10.0	-	-
	40대	5	22.7	12	54.5	2	9.1	0	0.0	0	0.0	1	4.5	0	0.0	2	9.1	-	-
계		29	27.9	52	50.0	6	5.8	3	2.9	3	2.9	2	1.9	1	1.0	8	7.7	-	-

[표 4-156]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혼자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고 고민이 있으면 함께 상의

(n=104)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위험군		일반군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5	28.3	16	30.2	10	18.9	5	9.4	1	1.9	2	3.8	2	3.8	1	1.9	
	여자	14	27.5	11	21.6	9	17.6	3	5.9	4	7.8	0	0.0	3	5.9	0	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	15.8	2	10.5	4	21.1	2	10.5	0	0.0	2	10.5	3	15.8	0	0.0	
	방학권	6	30.0	6	30.0	1	5.0	3	15.0	2	10.0	0	0.0	2	10.0	0	0.0	
	창동권	18	31.0	16	27.6	12	20.7	3	5.2	3	5.2	0	0.0	0	0.0	1	3.1	
	도봉권	2	28.6	3	42.9	2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20대	7	21.9	10	31.3	7	21.9	2	6.3	1	3.1	1	3.1	3	9.4	0	0.0	
연령대	30대	18	36.0	11	22.0	5	10.0	4	8.0	3	6.0	1	2.0	2	4.0	1	2.1	
	40대	4	18.2	6	27.3	7	31.8	2	9.1	1	4.5	0	0.0	0	0.0	0	0.0	
	계	29	27.9	27	26.0	19	18.3	8	7.7	5	4.8	2	1.9	5	4.8	1	1.0	

[표 4-157]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생활용품, 음식 등을 나누어 줌

(n=104)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위험군		일반군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7	32.1	15	28.3	5	9.4	6	11.3	2	3.8	0	0.0	4	7.5	3	5.7	
	여자	15	29.4	15	29.4	5	9.8	1	2.0	0	0.0	2	3.9	2	21.6	2	4.1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	21.1	4	21.1	3	15.8	0	0.0	1	5.3	1	5.3	3	15.8	1	2.6	
	방학권	5	25.0	10	50.0	0	0.0	3	15.0	0	0.0	0	0.0	2	10.0	0	0.0	
	창동권	20	34.5	14	24.1	7	12.1	4	6.9	1	1.7	1	1.7	1	17.2	4	12.5	
	도봉권	3	42.9	2	28.6	0	0.0	0	0.0	0	0.0	0	0.0	0	28.6	0	0.0	
	20대	9	28.1	12	37.5	4	12.5	2	6.3	1	3.1	1	3.1	0	9.4	1	2.4	
연령대	30대	20	40.0	10	20.0	2	4.0	3	6.0	1	2.0	0	0.0	6	16.0	4	8.3	
	40대	3	13.6	8	36.4	4	18.2	2	9.1	0	0.0	1	4.5	0	18.2	0	0.0	
	계	32	30.8	30	28.8	10	9.6	7	6.7	2	1.9	2	1.9	6	14.4	5	4.9	

[표 4-158]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필요시 목돈을 빌려 줌

(n=104)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7	32.1	11	20.8	8	15.1	3	5.7	2	3.8	2	3.8	3	5.7	7	13.2	8	15.1
	여자	18	35.3	9	17.6	2	3.9	3	5.9	0	0.0	0	0.0	1	2.0	18	35.3	8	16.3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	21.1	2	10.5	3	15.8	2	10.5	1	5.3	0	0.0	3	15.8	4	21.1	3	7.9
	방학권	7	35.0	7	35.0	1	5.0	2	10.0	1	5.0	2	10.0	0	0.0	0	0.0	0	0.0
	창동권	21	36.2	11	19.0	6	10.3	2	3.4	0	0.0	0	0.0	1	1.7	17	29.3	6	18.8
	도봉권	3	42.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57.1	7	43.8
	20대	12	37.5	5	15.6	4	12.5	2	6.3	0	0.0	1	3.1	2	6.3	6	18.8	4	9.8
연령대	30대	17	34.0	9	18.0	4	8.0	3	6.0	2	4.0	1	2.0	1	2.0	13	26.0	10	20.8
	40대	6	27.3	6	27.3	2	9.1	1	4.5	0	0.0	0	0.0	1	4.5	6	27.3	2	15.4
	계	35	33.7	20	19.2	10	9.6	6	5.8	2	1.9	2	1.9	4	3.8	25	24.0	16	15.7

[표 4-159]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함께 해줌

(n=104)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7	32.1	16	30.2	9	17.0	4	7.5	1	1.9	2	3.8	2	3.8	2	3.8	1	1.9
	여자	9	17.6	19	37.3	4	7.8	5	9.8	1	2.0	0	0.0	3	5.9	10	19.6	0	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	10.5	5	26.3	2	10.5	2	10.5	1	5.3	2	10.5	3	15.8	2	10.5	0	0.0
	방학권	2	10.0	9	45.0	2	10.0	4	20.0	1	5.0	0	0.0	1	5.0	1	5.0	0	0.0
	창동권	21	36.2	16	27.6	8	13.8	3	5.2	0	0.0	0	0.0	1	1.7	9	15.5	1	3.1
	도봉권	1	14.3	5	71.4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대	8	25.0	10	31.3	3	9.4	5	15.6	1	3.1	1	3.1	2	6.3	2	6.3	0	0.0
연령대	30대	9	18.0	19	38.0	6	12.0	3	6.0	1	2.0	1	2.0	2	4.0	9	18.0	1	2.1
	40대	9	40.9	6	27.3	4	18.2	1	4.5	0	0.0	0	0.0	1	4.5	1	4.5	0	0.0
	계	26	25.0	35	33.7	13	12.5	9	8.7	2	1.9	2	1.9	5	4.8	12	11.5	1	1.0

[표 4-160]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고 간호

(n=104)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 동료		이웃		공공·복지 기관		종교모임		온라인 지인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3	43.4	16	30.2	4	7.5	3	5.7	1	1.9	0	0.0	2	3.8	4	7.5	3	5.7
	여자	19	37.3	9	17.6	2	3.9	2	3.9	0	0.0	1	2.0	2	3.9	16	31.4	3	6.1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	21.1	2	10.5	2	10.5	4	21.1	1	5.3	0	0.0	3	15.8	3	15.8	0	0.0
	방학권	6	30.0	9	45.0	1	5.0	1	5.0	0	0.0	1	5.0	0	0.0	2	10.0	0	0.0
	창동권	29	50.0	12	20.7	3	5.2	0	0.0	0	0.0	0	0.0	1	1.7	13	22.4	5	15.6
	도봉권	3	42.9	2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2	28.6	1	6.3
연령대	20대	13	40.6	9	28.1	1	3.1	2	6.3	1	3.1	0	0.0	2	6.3	4	12.5	2	4.9
	30대	21	42.0	8	16.0	3	6.0	3	6.0	0	0.0	1	2.0	2	4.0	12	24.0	4	8.3
	40대	8	36.4	8	36.4	2	9.1	0	0.0	0	0.0	0	0.0	0	0.0	4	18.2	0	0.0
계		42	40.4	25	24.0	6	5.8	5	4.8	1	1.0	1	1.0	4	3.8	20	19.2	6	5.9

[표 4-161] 각 상황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 문화·여가 활동을 함께 함

(n=104)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직장동료				이웃				공공·복지기관				온라인 지인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7	32.1	19	35.8	6	11.3	1	1.9	2	3.8	4	7.5	4	7.5	1	1.9														
	여자	8	15.7	18	35.3	3	5.9	3	5.9	1	2.0	5	9.8	13	25.5	1	2.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	10.5	4	21.1	0	0.0	1	5.3	3	15.8	6	31.6	3	15.8	0	0.0														
	방학권	2	10.0	12	60.0	2	10.0	2	10.0	0	0.0	1	5.0	1	5.0	0	0.0														
	창동권	21	36.2	16	27.6	6	10.3	1	1.7	0	0.0	2	3.4	12	20.7	2	6.3														
	도봉권	0	0.0	5	71.4	1	14.3	0	0.0	0	0.0	0	0.0	1	14.3	0	0.0														
연령대	20대	7	21.9	8	25.0	4	12.5	3	9.4	1	3.1	4	12.5	5	15.6	0	0.0														
	30대	12	24.0	19	38.0	3	6.0	0	0.0	2	4.0	5	10.0	9	18.0	2	4.2														
	40대	6	27.3	10	45.5	2	9.1	1	4.5	0	0.0	0	0.0	3	13.6	0	0.0														
계		25	24.0	37	35.6	9	8.7	4	3.8	3	2.9	9	8.7	17	16.3	2	2.0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들이 여가시간에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여행, 캠핑, 야외 나들이가 30.8%(32명)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TV 또는 인터넷 방송 시청이 16.3%(17명), 문화예술 관람 및 가족, 친구, 지인과의 대화 또는 모임이 10.6%(11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62] 여가시간에 희망하는 활동: 1순위

구분		가족, 친구, 지인과의 대화 또는 모임		TV 또는 인터넷 방송 시청		문화예술 관람 (연극, 영화, 연주회 등)		운동 경기 관람		창작 활동 (독서, 미술, 악기연주 등)		동네 산책		운동 (축구, 테니스, 조깅 등)		여행, 캠핑, 야외 나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학습활동, 자기계발		휴식, 낮잠		가사일 (청소, 빨래, 요리 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n=104)																							
성별	남자	4	7.5	11	20.8	2	3.8	6	11.3	0	0.0	2	3.8	3	5.7	19	35.8	1	1.9	4	7.5	1	1.9	0	0.0
	여자	7	13.7	6	11.8	9	17.6	4	7.8	4	7.8	0	0.0	0	0.0	13	25.5	1	2.0	4	7.8	1	2.0	2	3.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0	0.0	8	42.1	3	15.8	0	0.0	1	5.3	0	0.0	1	5.3	5	26.3	0	0.0	0	0.0	0	0.0	1	5.3
	방학권	1	5.0	5	25.0	2	10.0	3	15.0	0	0.0	0	0.0	1	5.0	7	35.0	0	0.0	1	5.0	0	0.0	0	0.0
	창동권	10	17.2	4	6.9	4	6.9	7	12.1	2	3.4	2	3.4	1	1.7	16	27.6	2	3.4	7	12.1	2	3.4	1	1.7
	도봉권	0	0.0	0	0.0	2	28.6	0	0.0	1	14.3	0	0.0	0	0.0	4	57.1	0	0.0	0	0.0	0	0.0	0	0.0
연령대	20대	2	6.3	6	18.8	5	15.6	3	9.4	1	3.1	0	0.0	0	0.0	10	31.3	1	3.1	2	6.3	1	3.1	1	3.1
	30대	7	14.0	11	22.0	4	8.0	4	8.0	3	6.0	0	0.0	1	2.0	16	32.0	0	0.0	3	6.0	0	0.0	1	2.0
	40대	2	9.1	0	0.0	2	9.1	3	13.6	0	0.0	2	9.1	2	9.1	6	27.3	1	4.5	3	13.6	1	4.5	0	0.0
계		11	10.6	17	16.3	11	10.6	10	9.6	4	3.8	2	1.9	3	2.9	32	30.8	2	1.9	8	7.7	2	1.9	2	1.9

□ 여가 시간 활용(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함께 할 사람의 부재가 22.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용부담이 21.2%(22명),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이 14.4%(15명)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청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음.

[표 4-163] 여가 시간 활용(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

(n=104)

구분		건강상태		함께 할 사람 없음		마땅한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부재		문화 및 여가활동 정보 부족		적당한 여가시설이 나 장소 부족		비용 부담		시간 부족		하기 싫음/귀찮음		어려움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	7.5	11	20.8	7	13.2	11	20.8	5	9.4	8	15.1	1	1.9	3	5.7	3	5.7
	여자	4	7.8	12	23.5	4	7.8	4	7.8	3	5.9	14	27.5	2	3.9	8	15.7	0	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	10.5	6	31.6	1	5.3	1	5.3	3	15.8	6	31.6	0	0.0	0	0.0	0	0.0
	방학권	2	10.0	9	45.0	0	0.0	4	20.0	0	0.0	3	15.0	0	0.0	0	0.0	2	10.0
	창동권	3	5.2	8	13.8	9	15.5	10	17.2	5	8.6	9	15.5	3	5.2	10	17.2	1	1.7
	도봉권	1	14.3	0	0.0	1	14.3	0	0.0	0	0.0	4	57.1	0	0.0	1	14.3	0	0.0
연령대	20대	4	12.5	9	28.1	1	3.1	2	6.3	3	9.4	7	21.9	1	3.1	5	15.6	0	0.0
	30대	4	8.0	10	20.0	8	16.0	5	10.0	3	6.0	11	22.0	1	2.0	5	10.0	3	6.0
	40대	0	0.0	4	18.2	2	9.1	8	36.4	2	9.1	4	18.2	1	4.5	1	4.5	0	0.0
계		8	7.7	23	22.1	11	10.6	15	14.4	8	7.7	22	21.2	3	2.9	11	10.6	3	2.9

6) 정책 인식

- 도봉구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도봉구의 지원 정책으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경우,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던 일반 청년 가구에 비해 주거안전 지원 정책 욕구가 25.0%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고용지원(23.1%), 문화·여가 활동지원(21.2%)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64]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도봉구의 지원 정책 : 1순위

(n=104)

구분	고용 지원 (일자리, 취업·창업지원 등)		건강 관리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 (공간, 소모임 등)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정보공유 강화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		치안, 방범 등 안전 강화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1인 가구 인식 개선		응급 상황 대응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성별	남자	28.3	13.2	26.4	22.6	3.8	0.0	1.9	0.0	0.0	3.8	0.0	0.0	0.0	1.9	0.0	0.0	-	-	-	-	-	-	-
	여자	17.6	19.6	15.7	27.5	2.0	3.9	2.0	2.0	2.0	3.9	2.0	2.0	9.8	2.0	2.0	9.8	-	-	-	-	-	-	-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1.6	26.3	10.5	15.8	5.3	5.3	0.0	0.0	0.0	5.3	0.0	0.0	5.3	0.0	0.0	5.3	-	-	-	-	-	-	-
	방학권	30.0	15.0	20.0	3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	-	-	-	-
	창동권	17.2	15.5	25.9	22.4	3.4	5.2	3.4	1.7	1.7	5.2	1.7	0.0	5.2	3.4	3.4	5.2	-	-	-	-	-	-	-
	도봉권	28.6	0.0	14.3	42.9	0.0	0.0	0.0	0.0	0.0	0.0	0.0	0.0	14.3	0.0	0.0	14.3	-	-	-	-	-	-	-
연령대	20대	34.4	21.9	18.8	12.5	3.1	6.3	12.5	0.0	0.0	6.3	0.0	0.0	3.1	0.0	0.0	3.1	-	-	-	-	-	-	-
	30대	20.0	12.0	22.0	34.0	4.0	2.0	34.0	2.0	2.0	2.0	2.0	2.0	2.0	2.0	2.0	2.0	-	-	-	-	-	-	-
	40대	13.6	18.2	22.7	22.7	0.0	4.5	22.7	0.0	0.0	4.5	0.0	0.0	13.6	4.5	4.5	13.6	-	-	-	-	-	-	-
계	위험군	23.1	16.3	21.2	25.0	2.9	3.8	25.0	2.9	1.0	3.8	1.0	1.0	4.8	1.9	1.9	4.8	-	-	-	-	-	-	-
	일반군	27.5	6.9	17.6	21.6	7.8	3.9	21.6	7.8	5.9	3.9	5.9	5.9	3.9	2.0	2.0	3.9	1.0	1.0	1.0	1.0	1.0	1.0	1.0

□ 세부적으로, 경제분야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경우 다양한 직업 훈련 교육 제공을 원한다는 응답이 23.1%(2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직 기간 중 생계비 지원(20.2%, 21명),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제공(15.4%, 16명)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일반 청년 가구의 경우는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65]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경제 분야 지원 정책 : 1순위

(n=104)

구분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구직활동 기간 중 생계비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제공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격증 취득, 교육 비용 지원		지자체 일자리 창출		각종 세제에서 1인가구에 대한 불이익 개선		재무상담 및 컨설팅		노후 준비교육 및 상담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6	11.3	9	17.0	15	28.3	11	20.8	5	9.4	1	1.9	5	9.4	-	1	1.9
	여자	10	19.6	12	23.5	9	17.6	0	0.0	10	19.6	0	0.0	7	13.7	-	3	5.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	10.5	5	26.3	3	15.8	2	10.5	4	21.1	0	0.0	3	15.8	-	0	0.0
	방학권	3	15.0	6	30.0	6	30.0	0	0.0	3	15.0	0	0.0	2	10.0	-	0	0.0
	창동권	10	17.2	9	15.5	14	24.1	9	15.5	4	6.9	1	1.7	7	12.1	-	4	6.9
	도봉권	1	14.3	1	14.3	1	14.3	0	0.0	4	57.1	0	0.0	0	0.0	-	0	0.0
연령대	20대	5	15.6	10	31.3	8	25.0	2	6.3	4	12.5	0	0.0	3	9.4	-	0	0.0
	30대	10	20.0	9	18.0	10	20.0	4	8.0	7	14.0	0	0.0	6	12.0	-	4	8.0
	40대	1	4.5	2	9.1	6	27.3	5	22.7	4	18.2	1	4.5	3	13.6	-	0	0.0
계	위험군	16	15.4	21	20.2	24	23.1	11	10.6	15	14.4	1	1.0	12	11.5	-	4	3.8
	일반군	31	30.4	20	19.6	16	15.7	8	7.8	10	9.8	4	3.9	6	5.9	3	2.9	3.9

□ 주거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의 경우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마련 자금 대출 지원을 원한다는 응답이 35.6%(3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34.6%, 36명),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복합서비스 시설 마련(15.4%, 16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66]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 : 1순위

(n=104)

구분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지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1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택 공급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복합서비스 시설 마련		여성전용 원룸시설 정보 제공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7	32.1	17	32.1	11	20.8	8	15.1	-	-	-
	여자	20	39.2	19	37.3	4	7.8	8	15.7	-	-	-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6	31.6	7	36.8	4	21.1	2	10.5	-	-	-
	방학권	10	50.0	6	30.0	2	10.0	2	10.0	-	-	-
	창동권	17	29.3	21	36.2	8	13.8	12	20.7	-	-	-
	도봉권	4	57.1	2	28.6	1	14.3	0	0.0	-	-	-
	20대	9	28.1	11	34.4	7	21.9	5	15.6	-	-	-
연령대	30대	22	44.0	18	36.0	4	8.0	6	12.0	-	-	-
	40대	6	27.3	7	31.8	4	18.2	5	22.7	-	-	-
계	위험군	37	35.6	36	34.6	15	14.4	16	15.4	-	-	-
	일반군	55	53.9	21	20.6	17	16.7	5	4.9	3	2.9	1.0

□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안전 정책으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은 주택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을 원한다는 응답이 45.2%(47명)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주택 내부 환경 개선이 28.8%(30명)의 순으로 나타남. 일반 청년 가구 역시 주택 내·외부 환경 개선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일반 가구 청년의 경우는 주택 내부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청년 가구의 경우는 주택 외부(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1순위로 나타남.

[표 4-167]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안전 정책 : 1순위

(n=104)

구분	주택 내부환경 개선		주택 주변환경 개선		위급 상황 시 사회적 보호장치 제공		안심도우미 서비스 제공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태배함 설치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		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 프로그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6	30.2	24	45.3	4	7.5	6	11.3	2	3.8	1	1.9	0	0.0
	여자	14	27.5	23	45.1	3	5.9	4	7.8	4	7.8	2	3.9	1	2.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7	36.8	5	26.3	2	10.5	3	15.8	1	5.3	1	5.3	0	0.0
	방학권	6	30.0	7	35.0	3	15.0	2	10.0	2	10.0	0	0.0	0	0.0
	창동권	15	25.9	30	51.7	2	3.4	5	8.6	3	5.2	2	3.4	1	1.7
	도봉권	2	28.6	5	71.4	0	0.0	0	0.0	0	0.0	0	0.0	0	0.0
연령대	20대	13	40.6	12	37.5	0	0.0	5	15.6	1	3.1	0	0.0	1	3.1
	30대	15	30.0	19	38.0	6	12.0	4	8.0	3	6.0	3	6.0	0	0.0
	40대	2	9.1	16	72.7	1	4.5	1	4.5	2	9.1	0	0.0	0	0.0
계	위험군	30	28.8	47	45.2	7	6.7	10	9.6	6	5.8	3	2.9	1	1.0
	일반군	43	42.2	37	36.3	6	5.9	11	10.8	2	2.0	3	2.9	-	-